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인사회, 트럼프 당선 충격 컸다

2016 보스톤코리아 선정 10대 뉴스 1위 트럼프 당선 박근혜 게이트와 보스톤 대학가 시국선언 바람 2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한인사회 영향에 많은 관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트럼프 당선은 한인들에는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라는 점이다. 한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지대한 우려를 금치 못했다.

- 2016년 보스톤 한인사회 10대 뉴스**
1. 트럼프 당선과 인종차별 증대
 2. 박근혜 게이트와 보스톤 대학 시국선언 바람
 3. 매사추세츠 마리화나 합법화
 4. 한인회장 후보 없이 내년부턴 공석
 5. 하버드 교수 고대사연구 포기
 6. 비에 젖은 보스톤 커먼 한인축제
 7. 중앙일보 지사장관련 사기 한인올려
 8. 한인유학생 감소
 9. 흑한흑서 날씨 극심
 10. 4월총선 재외국민선거

보스톤코리아가 2016 한해를 마감하며 선정한 10대뉴스에서 1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인종차별증대>가 차지했다. 트럼프 당선은 보스톤코리아 편집진, 칼럼니스트 그리고 한인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표를 받았다. 이번 10대 뉴스 선정에는 총 15명이 참가했다.

트럼프 당선은 1위로 선정한 윤희경 칼럼니스트는 “한인이 받은 심적 충격과 실망의 크기로는 <박근혜 게이트>가 1위다. 그러나 미국 거주 한인들에게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의 탄생이 더 큰 뉴스다. 공화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이민, 인종 등 주요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케어 폐기,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개인부담 방안, 공격적 대북관계, 소수민 보호 이완과 차등, 불법이민자추방 등 교민들에게 대체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인들은 트럼프의 당선 충격을 접하기 전 별

써 한국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한 방을 맞은 터였다. 국정농단 사태에 보스톤의 하버드 대학, MIT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시국선언>으로 한국의 촛불에 힘을 보탤다. 감리교 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한인교회협의회까지 <조국을 위한 기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처벌을 주장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며 머나먼 미국 땅 유학생들이 항의 촛불시위에 함께 불을 붙이고 확대되도록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이 뉴스는 2위에 선정됐다. 두번째로 많은 1위표를 받았지만 트럼프 당선이란 현실적인 위협을 넘지는 못했다.

이 뉴스를 1위로 선정한 신영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국정 논란으로 혼란이 시작되던 때 보스톤에서 학업에 열중하던 젊은 한인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하버드 대학과 MIT에서 먼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나마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했었다.” 고 이유를 밝혔다.

매사추세츠 마리화나 합법화는 모든 한인들이 관심이 컸던 뉴스였다. 특히 마리화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한인사회에서 합법화가 오남용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3위를 차지하도록 했다. 더 >>2면으로 계속

보스톤코리아 30일자 정기휴간

보스톤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휴무주일을 맞아 30일자를 휴간합니다. 복된 성탄절과 함께 새해에는 모든 소원하시는 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

숨피, 세계 최고 한류스타 가린다

제12회 숨피어워즈 후보자투표 내년 1월16일까지 K팝과 K드라마의 각 15개 부문 최고 한류스타 선정 K드라마 올해의 연기자상과 K팝 올해의 아티스트 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6년을 빛낸 최고의 한류스타는 누구일까. 세계 글로벌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2회 숨피어워즈(Soompi Awards) 부문별 인기투표가 12월 22일 시작했다.

한류뉴스 사이트 숨피(Soompi)가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는 숨피어워즈는, K팝과 K드라마 두 분야에서 각 15개 부문에 걸쳐 한 해 동안 가장 인기를 누리던 스타나 앨범, 작품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139개국에서 4천 만이 넘는 투표가 집계될 만큼 글로벌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TBO PLAY
보스톤코리아
B.A. & M.A. 자격 보유 영어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할:
\$39.99

어른 고객 특별 할인
즉 방송사에서 확보 할때보다
감아하시는 금액 할때
할 \$39.99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즐거운 연말연사를 Tbo와 함께!
신년 첫 기념품에 투자해
617-955-9112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Dr. Chang Won, D.D.P.
수정산부인과 전문
Chang Won, M.D.

보통사교/학명보통수업/노/아/영/어/외
통증관리
617.731.1001
보통사교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초등까지

FD&T 전문판매 대리
www.je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learning.com

2016년, 보스톤 지역 한인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뉴스는?

▶▶1면에 이어서

불어 자녀들의 마리화나 접근이 쉬워진 점 등에도 한인들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합법화 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이 우려하는 만큼 마약중독 증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양성화로 인해 오남용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딜레마다. 한인회장 후보 등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한인회장 후보 빈곤에 시달린 보스톤이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한인회에 관심도 없고 한인회의 존재 여부가 한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이 뉴스를 4위에 선정할 정도로 마치 관성처럼 한인회에 관심의 끈은 놓지 않는다. 한인회에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참여해야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있는 걸까.

비록 몇번에 걸쳐 퇴임의사를 밝혔지만 김경원 현 한인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추후 김 회장이 한인회관의 운영을 두고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와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경우 내년 한인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인회관은 한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하면 큰 논란 거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타 도시의 선례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 건립이 정말 한인들을 위한 것인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위는마크 바잉턴 하버드 교수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포기하게 된 사연을 담은 뉴스가 차지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10만여명이 뉴스를 구독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지만 지금 당장 한인사회에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순위가 밀렸다. 그러나 학문적인 영역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정치와 법이 자주 개입해 학문 연구를 압박하는 한국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한인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 뉴스를 1위로 뽑은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 학문의 영역에 외부의 힘이 개입해 한국고대사프로젝트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 하버드에서 마이

크 바잉턴 교수의 한국고대사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며 1위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본지 박현아 기자는 “2세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교육이며 한국의 역사가 바로 알려져야 아이들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된다” 며 1위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뉴스는 5위이지만 1위표를 2표 획득할 정도로 선정 편차가 컸다.

비에 젖은 <보스톤 커먼 한인축제>는 6위에 꼽혔다. 실제로 맑은 날씨에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상위권에 선정될 수 있었지만 비로 행사가 씻겨 내려갔던 관계로 하위권으로 처졌다. 이 뉴스를 1위로 선정한 정성일 기자는 “이민자로서의 한인들의 위상과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고 높일 수 있다. 올해는 비록 비 때문에 축제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매년 계속된다면 한국의 문화를 보스톤에 더욱 알리고, 그에 따라 보스톤 한인들의 위상과 입지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보스톤 중앙일보 지사장 관련 사기사건의 경우 한인사회 최초 언론사 관련 사기사건이란 점과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2016년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 조회수로 본 10대 뉴스

1.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포기한 까닭
2. 청중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보스톤 공연
3. 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장 경찰 수사중
4. <편집국에서>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에 던지는 공개 질문
5. 오준 유엔 대사 “북핵” 주제로 4일 MIT에서 강연
6. 씨티뱅크의 철수 물렸던 일부 학생들 망연자실
7. 빅데이터 스타트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보스톤 진출
8. 보스톤에서 꼭 해보아야 할 18가지
9. 세금 보고, 건강보험 증명서류 꼭 챙겨야
10. 하버드 학생들 보스톤 첫 시국선언

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충격은 심각하다. 심지어 중앙일보도 민사소송을 했을만큼 피해를 입었다. 단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7위에 오른 이유다. 한인 유학생 감소는 한인사회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두가 예의 주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사회, 경제의 안정화가 보스톤 사회, 경제의 안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 뉴스는 공동 7위에 선정됐다.

9위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의 극심

화는 가장 가장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10위 4월 재외선거는 유학생들에게도 현지 한인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민을 안겨준다. 이민사회의 지향점이 미 주류사회여야 한다는 당면과제와 한국의 재외국민의 권리행사는 충분히 양립하는 가치이다. 투표율 저조는 그만큼 권리의 축소와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editor@bostonkorea.com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1위
트럼프 당선과 인종차별 증대
트럼프의 당선은 상당수 한인들에게 충격이었다. 충격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그동안 숨죽여 왔던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매사추세츠 법무부에서는 혐오범죄 핫라인을 개설해 혐오범죄 신고를 받기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사추세츠 주는 뉴욕에 이어 인종차별 신고 접수가 두번째로 많은 주로 나타났다. 향후 계속 인종차별 등 혐오범죄의 증가는 이민생활 또는 유학생생활에서 감내해야 할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게이트, 보스턴 대학가 시국선언 바람
한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촛불 모임을 응원하는 시국선언이 보스턴 대학가에서도 일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시국선언은 하버드대학 학부생이 중심이 된 학생회였다. 11월 4일 하버드 대학 학부 한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모여 보스턴 지역 첫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11월 11일 MIT에서는 대학원생이 중심이 되고 교직원 및 학부생들이 참여해 촛불집회 및 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했다. 11월 14일에는 뉴잉글랜드 연합감리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이 보스턴대학(BU) 마쉬채플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며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16일에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국선언 집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보스턴 소재 이민교회 연합인 한인교회협의회는 시국기도문을 통해 시국선언을 표했다. 한인교회협의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공동의견을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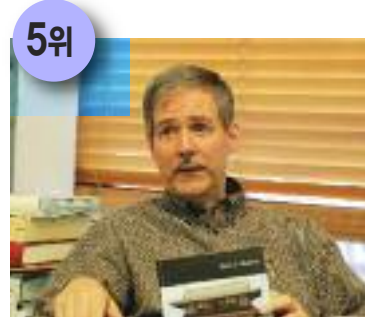
매사추세츠 마리화나 합법화
12월 15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다. 술과 담배처럼 성인이라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화란 것은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디서나 흡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술병을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차안에 두고 운전하면 불법이듯이 마리화나를 오픈된 채로 운전하면 불법이다. 물론 승차시 음주,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다. 공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도 술과 마리화나는 금지다. 단 마리화나를 파는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마리화나 접근 또한 쉬워진 것도 사실이다. 자녀들에게 마리화나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함과 동시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위
한인회장 후보 또 없어 31일 이후 공식
2015년 5월 출범했던 김경원 보스턴

한인회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마감됨에 따라 한인회는 한인회장 모집 공고를 냈으나 11월 18일까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질적인 한인회장 후보 빈곤 현상이 재현된 것이다. 김경원 회장은 임기말인 12월 31일까지만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에는 3월 총회를 위한 행정업무만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같은 공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12월 17일 단재장 및 고문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폭설로 취소됐다. 문제는 추후 개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올 연말 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위
한국고대사 연구포기한 하버드대 교수
마크 바잉턴 하버드 교수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국 교류재단의 지원 중단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를 접게 된다. 그동안 그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사 연구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하버드에서 고대사 관련 각종 컨퍼런스 및 강의를 개최해왔다. 미국 역

사학계와 학도들은 고대 한국사의 갈등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EKP사업은 종료됐으며, 월급의 60%를 지원하던 한국교류재단의 계약도 2017년 1월 종료된다.

보스턴코리아닷컴의 기사에는 불과 2주만에 무려 10만에 가까운 독자들이 글을 읽어 독자들의 관심을 드러냈지만 한국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더 이상의 관심은 끌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큰 변화는 없다.



6위
한인 축제 보스턴 커먼 비로 축소 일
본축제 6만여명 성황
보스턴 한인회는 지난해 보스턴시로부터 한국의 날을 지정해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올해는 보스턴 커먼에서 한국의 날을 기념하는 한인축제 1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가뭄에 쏟아진 비로 인해 축제가 아닌 한국의 날 기념식 진행으로 만족해야 했다. 행사도 축소했으며 3시경 일찌감치 행사를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올해 5월 진행됐던 일본인 축제에 ▶▶4면으로 계속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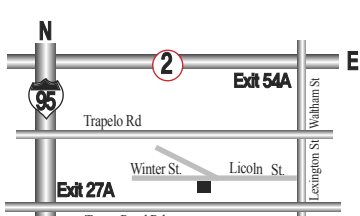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 Class | Time | |
|-----------------|--------------------|------------|
| PSAT / SAT prep | 9:00 AM – 11:00 AM | 11th Grade |
| SAT prep | 11:30 AM – 1:00 PM | 10th Grade |
| SAT prep | 1:30 PM – 3:00 PM | 9th Grade |
| SAT I prep | 4:00 PM – 6:00 PM | 12th Grade |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3면에 이어서

는 사상 최대인 6만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7위



중앙일보 보스톤지사장 관련 사기 한인 울려

중앙일보 보스톤 판을 발행했던 박씨가 페리카나라는 한국 치킨체인점 대리점 모집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페리카나 라이선스를 내주겠다고 돈을 받은 사건이었다. 박씨는 페리카나 본사와 아무런 계약없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해 법정에서 서게됐다. 피해자 김씨부부는 사실상 은퇴 자금 전재산을 날린 셈이 됐다. 가해자 박씨는 중앙일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8위

매사추세츠 대학재학 이상 한인유학생수

| 연도 | 유학생수 | 연도 | 유학생수 |
|------|------|------|------|
| 2012 | 2764 | 2015 | 2827 |
| 2013 | 3035 | 2016 | 2972 |
| 2014 | 3074 | | |

유학생들 지속적인 감소세 미국내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7월 미국내 유학생 수는 7만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0년 10만1천여명에 비해 약 30%정도 감소했다. 다행히 매사추세츠 지역의 유학생의 감소세는 크지 않지만 감소세가 계속 된다는 추세가 중요하다. 대학생 재학 이상의 유학생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조기유학의 감소세는 눈에 띈다. 또한 한국 내 정국 불안과 경제침체 등으로 연수 또는 연구원들의 보스톤 방문도 상당수 줄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의 부동산, 식당 등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 한인들은 일부 영향을 받고 있다.

9위



혹서, 혹한 보스톤 날씨 점차 극심
보스톤의 8월은 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다. 가뭄도 가장 극심했다. 이

같은 가뭄은 12월인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2월이었다. 그러나 1년 전이었던 2014-2015년 겨울은 완전히 정반대였다. 보스톤 역사상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고 사상 두번째로 추웠던 2월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점차 무더위와 혹한 폭설 등이 번갈아 덮치는 극심한 날씨 패턴이 최근 들어 뉴잉글랜드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내 전역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삶을 옥죄어 들고 있다.

10위



4월 재외국민 총선 투표 낮은 투표율 재외동포 푸대접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실시된 재외국민 선거에서 마

지막 2일 동안 폭설이 내렸지만 보스톤은 50%투표율을 기록하며 미국내 투표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수가 1364명으로 지난 19대 총 유권자 등록수인 1986명에 비해 턱없이 작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미국내 전체 유권자의 경우 198만여명 중에서 3.2%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기대했던 10% 투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은 재외선거비용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11위



평통 통일안보 비전 대회
민주 평통에서 국방부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평통 통일안보비전대회에는 10여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초등학교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인, 네델란드 인들까지 한국의 통일문제 대한 발표회를 하는 등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현대 무용, 노래, 연극, 연주, 발표 등 다양한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발표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12위



대학가에서 일주일간 열린 국악 축제 한미예술협회의 노력으로 보스톤 소재 여러 대학에서 국악 및 한인 예술가 축제가 3월 개최됐다. 브랜디스 대학의 일주일간 국악축제는 물론, 웰슬리 대학, NEC, 그리고 하버드 신학 대학 등에서 국악과 관련된 연주와 워크숍이 진행됐다.

한국의 국악명인 이태백, 이석주, 이지영, 원완철, 임현빈, 힐러리 핀천 성씨 6인이 참여해 강연, 공연을 겸했다. 한인 예술가들의 전시회까지 한국의 문화를 보스톤의 대학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한 한국문화축제였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연말 선물은 정관장

행사기간: 12.5 ~ 12.24 까지

전지1 | 홍삼정 240g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50g 무료증정 \$48 상당

전지2 | 홍삼정 240g 2개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120g 무료증정 \$100 상당

홍삼정 240g 구입시
FREE GIFT 홍삼정 30g 무료증정

BIG SALE 30% OFF 동인비 전제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 주문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8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민주평통 폭설속에 효도잔치

60여명 노인 참가, 구정에 다시 효도잔치 개최 약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가 주최한 효도잔치가 17일 토요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60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17일 새벽부터 시작된 폭설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했었지만 “어르신들과의 약속이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한선우 회장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됐다. 해당 위원들은 한시간씩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준비했다.

예정된 행사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60여명의 노인들이 잔치에 참석했다. 노인회 유영심 회장은 한선우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선우 회장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셔서 감사하다. (폭설로) 멀리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 못해서 아쉽지만 구정에 다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시 효도잔치를 열것”이라고 약속했다.

점심에 이어 첫번째 공연으로 Concord Women's Chorus에서 활동하는 백정옥씨가 “광화문 연가”를 불렀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

쯤은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걸었을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을 생각하며 어르신들의 추억을 떠오르도록 선곡했다”고 백정옥씨는 밝혔다.

보스톤 컬리지에 재학중인 싱어송라이터 서의환씨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과 자신의 자작곡 “꽃잎”을 열창하며 어르신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서의환씨는 한국에서 방연되는 “위대한 탄생”에서 상위권에 랭킹되었고 싱글앨범도 발표한 유망주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보스톤지역협의회가 주최한 효도잔치가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 선교교회에서 60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민 관련서류 신청 수수료 23일부터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신청 서류 수수료 대폭 인상안이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6년만에 첫 인상이며 평균 21%이 비용이 인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취업청원(I-129)는 \$325에서 \$460으로 42%인상됐다. 투자이민신청(I-526)은 \$1,500에서 \$3,675로 145% 경증 뛰었다.

영주권 취득시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은 \$580에서 \$700로 20%인상됐으며 영주권신청(I-485)의 경우 \$985에서 \$1,140으로 16% 올랐다.

다만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에서 \$640으로 가장 인상폭이 낮은 8%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지문채취료 \$85을 더하면 \$725에 달해 시민권 취득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됐다. 다만 이민국은 연방빈곤선 150% 이상 200% 이하인 신청자들에게는 신청료를 \$320로 낮춰준다. 4인 가족 기준 \$36,000에서 \$48,600이하의 소득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새로운 양식인 I-942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빈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세계 최고 한류스타 선정 숨피투표 시작됐다

▶▶1면에 이어서

한류 인기의 지형도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쪽은 분야별 최고 인기스타상이다. K드라마 '올해의 남자연기자(Actor of the Year)' 부문에서는 '태양의 후예'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송중기와 '응답하라 1988'에 이어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연속 흥판을 치며 급부상한 박보검의 2과전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방영중인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주연을 맡은 이민호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올해 누적 드라마 시청층만 놓고 보면 송중기와 박보검의 경쟁이 예상되지만,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상속자들) 등 메가히트 한류드라마를 통해 넘버원 톱스타의 지명도를 갖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를 끈다. K드라마 '올해의 여자연기자(Actress of the Year)' 부문에서는 '닥터스'에서 열연한 박신혜의 인기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태양의후예'에서 3년 만에 주연으로 복귀한 송혜교,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2년 만에 주연을 맡

은 전지현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팝 분야는 남녀 구분 없이 선정하는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가 최고상이다. 수년간 엑소(EXO), 빅뱅(Big Bang) 등 보이그룹이 이 상을 독식했으나 올해는 '트와이스(Twice)'의 급부상으로 걸그룹이 수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해석처럼 등장한 트와이스는 올해 두장의 앨범이 세계적 빅 히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두장의 앨범을 히트시킨 엑소와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도 높아 투표의 향방은 안개속이다. 지난해 모두의 예상을 깨고 K드라마 여자연기자상을 송지효가 수상한 데다, 또 지난해 K팝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서 신예 방탄소년단이 전년도 수상자 엑소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한 이변에서 보듯, 글로벌 한류팬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내년 1월16일까지 진행되는 투표 이벤트는 숨피어워즈 공식 홈페이지(www.soOMPI.com/awards)와 라인(LINE) 푸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12월27일과 1월5일에 트위터(Twitter) 베스트팬덤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숨피어워즈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인기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와 가수 겸 모델 조타(Jota)가 이벤트 MC로 참가한다. 미국의 연예TV인 퓨즈(Fuse)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해 숨피어워즈 투표 이벤트 및 수상자 선정을 지속 보도할 예정이다. 미국의 숨피(Soompi)는 대표적인 한류뉴스 전문 사이트로써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사이트도 있으며, 지난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웹플랫폼인 미국의 비키(VIKI) 사가 인수했다.

hsb@bostonkorea.com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NAKS-NE)는 2016년도 교장단회의를 열었다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 교장단 회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NAKS-NE)는 12월 18일, 지역 각 학교 교장, 이사회 및 협의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2016년도 교장단회의를 열었다. MA주 웨스트포드(Westford) 소재 한 한국식당에서 교장단은 2016년의 협의회 활동에 대해 돌아보고 2017년협의회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교장단 회의의 주요 안건은 1월 말 예정된 협의회 행사 (찾아가는 역사, 문화 캠프)였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봄학기 행사인 사은회, 글짓기 및 나의 꿈 말하기대회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6월 정기총회에서 토의할 사항으로 부회장직 인원과 임기에 관한 제안이 있었고, 한국학교의 결산 보고에 관한 설명

회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1월 말, 열리는 역사캠프에 관해 한순용회장은 "이번 캠프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역사캠프다"라며 각 교장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메인한국학교 신영욱교장, 안영례교장, 그린랜드한국학교 조은경교장, 천주교한국학교 서용학교장, 성요한한국학교 이현경교장, 퀴지한국학교 최연식교장, 보스톤감리교회한국학교 정에스터교장, 에머스트한국학교 박철교장, 밀알한국학교 김현주교장 외에도 윤미아이사장과 명정호부이사장, 그리고 한순용회장과 박지애총무가 자리를 함께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 자원봉사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에서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들은 펭귄, 물고기, 바다표범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해변에 떠밀린 고래, 바다거북, 돌고래 등을 구조하고 재활을 돕는 일 또는 방문객과 교육담당 직원을 돕는 일 등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는 연중 어느 때나 다양한 부서에서 가능하며 일단 시작하

면 반드시 6개월간은 봉사해야 한다. 일주일 중 1일은 풀타임(오전8시-오후6시)으로 일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으로 주말 자원봉사, 단기 자원봉사, 1회성 직업체험등도 가능하다. 자원봉사는 온라인(http://serve.neaq.org/)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volunteer@neaq.org 또는 617-973-5235로 하면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올해의 보스토니안에 선정된 배성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대안 고등학교 디플로마 플러스(Diploma Plus)의 프로그램 디렉터 배성준(41) 씨가 보스톤 글로브에 의해 '올해의 보스토니안(Bostonian of the Year)'에 선정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14일 '포기할 줄 모르는 교육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배성준 씨의 수상 소식을 보도했다.

디플로마 플러스(Diploma Plus)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실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찰스타운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성준 씨는 올해 초 보스톤 학교위원회 예산 삭감 목록에 있었던 이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복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초 배 씨는 보스톤 학교위원회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 디플로마 플러스의 역할이 기존의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강조하며 "학생들은

영어교사가 자신들의 과제를 7번이나 수정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총 60여명이다.

배 씨의 열렬한 연설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증언에 힘입어 디플로마 플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복원될 수 있었다. 찰스타운 고등학교의 오랜 파트너인 리버티 무추얼(Liberty Mutual)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했다.

이 외에도 배 씨는 올해 6월 넬리 매 교육재단(Nellie Mae Education Foundation)의 교육상을 수상하며 프로그램에 사용할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수상을 포함한 대중의 찬사에 대해 배씨는 "관심이 당황스럽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sun@bostonkorea.com



도체스터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도서관의 모습 (이미지 출처: JFKlibrary.org)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내년에 있을 존 F. 케네디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체스터에 위치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은 19일 그의 생애와 대통령직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리는 행사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케네디는 1917년 5월 29일 브루클라인에서 태어났다.

100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5월에는 4일 연속 행사가 진행된다. 그보다 한달 앞선 4월에는 기념 미식축구 경기가 있을 계획이다. 첫 번째 주요 행사는 2월 셋째 주인 미국 대통령의 날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날 미국 우편 서비스는 케네디 기념 우표를 발급할 예정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손자 잭 슈로스버그(Jack Schlossberg)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00주년은 케네디 대통령의 유산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할 아버지는 역사의 학생이었다. 현시

대에 직면한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그의 유산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다"라고 밝혔다.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John F. Kennedy Library Foundation)의 디렉터 스티븐 로스타인(Steven Rothstein)은 도서관에서 진행될 대부분의 행사가 무료이며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전했다. 박물관은 입장료를 부과하지만, 5월에 있을 특별 전시회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JFK 100주년: 이정표와 메멘토스'(JFK 100: Milestones and Mementos)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회에는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케네디의 삶을 조명할 예정이다. 케네디의 넥타이, 선글라스, 가죽가방과 같은 개인유품을 비롯하여 시민권에 관한 연설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필기 노트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품 중에는 케네디의 아이들이

백악관 잔디에서 수집한 밤과 같은 개인적인 유품도 있다.

박물관 큐레이터 스테이시 브레드호프(Stacey Bredhoff)는 "전시는 케네디를 하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의 초상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각이 서로 보완하는 것과 같다"고 전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는 보스톤 레드 삭스 게임, 평화 봉사단 자원봉사자 복귀 기념행사, 대형 케이크 등이 포함된다. 케이크는 1953년 케네디의 결혼식에 4피트 높이의 케이크를 제공했던 몬틸리오(Montilio)의 베이킹 컴퍼니가 준비 중이다.

케네디 100주년 이벤트는 또한 브루클라인 비알스가 83번지에 위치한 케네디 생가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sun@bostonkorea.com



배성준 씨는 올해 초 보스톤 학교위원회 예산 삭감 목록에 있었던 디플로마 플러스의 재정 지원 복원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baystatebanner.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자산보호, 불려진 방지, 재무 조정
신용회수, 분쟁 및 조정
고용사고 상해, 약한민
법정 사업제 등록, 증권, Divorce, TDR
부동산(매각)리스 PM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외 파산에 드리는 기본 서비스

주요 업무: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 삭제 서비스(1년)

신용회수, 파산신청, 부양금 및 위자료, 자립 및 연금의 문제, 부채, 영주권 및 시민권, 각종 소송(민형사) 및 기타

Call Us at: (781) 712-1706, 781-712-2088

장우석 변호사 변호사사무소 최 뉴욕 주 파트너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3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당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망설일 필요 없는 1월 보스톤 출발 저가 항공권 모음

크리스마스, 연말 항공권은 대부분 매진 1월 출발, 편도 100달러 이하 도시 노려볼 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가는 한달간의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많은 학생들이 연말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 가운데, 보스톤에 남은 학생들은 짧은 방학동안 여행을 준비하려 해도 항공권을 구하기가 버겁다. 당장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 항공권은 매진이거나 300달러 이하의 항공권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1월 1일 이후의 항공권이라면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다. 아래는 겨울방학기간에 보스톤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항공권의 목록이다.

〈애틀란타〉 - 78달러

애틀란타는 보스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으로 검색되었다. 항공편은 스피릿 항공이 가장 저렴하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출발일정도 많다. 1월 6일에서 9일사이의 여정은 85달러, 1월 7일에서 10일사이의 여정은 78달러에 구매가 가능하고, 1월 5일 이후부터 한달간 스케줄은 3박 4일 일정 기준으로 12일 출발편만 피한다면 왕복 100달러 이하로 다녀올 수 있다.

* 예약 - 스피릿 항공

〈시카고〉 - 102달러

시카고의 겨울은 보스톤의 겨울보다 더 춥다. 평년기온은 보스톤보다 약간 더 추운 날씨지만 작년 겨울은 보스톤의 최저기온과 30도(화씨 기준)나 차이가 날 정도로 모든 도시를 열게 만들었기에 겨울에 시카고 행은 추천하지 않지만 대신 저렴한 항공권을 구할 수 있다. 1월 6일 출발편은 편도 54달러, 평일인 10일과 11일에는 이보다 더 저렴한 편도 49달러 항공권이 남아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항공사도 믿을 수 있는

제트블루인데 가격은 보스톤 발 뉴욕 행 고속 버스 수준이다. 1월 6일 출발편으로 1월 10일 돌아오는 여정으로 스케줄을 정한다면 왕복 102달러에 다녀올 수 있다.

* 예약 - 제트블루

〈워싱턴 DC〉 - 117달러

온라인 상으로 워싱턴 DC로 가는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스피릿 항공편이다. 1월 중에도 왕복 1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는 항공 스케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스피릿 항공의 워싱턴 DC행 항공편은 워싱턴이 아닌 인근의 볼티모어 공항(도심에서 43km)을 이용한다. 렌터카를 대여할 예정이 아니라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이용하는 (도심에서 6km) 117달러의 제트블루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이 적합하다. 이 가격의 항공권은 12일에서 14일 사이의 출발편에 적용된다.

* 예약 - 아메리칸 항공 / 제트블루 항공

〈올란드〉 - 135달러

미국의 인기휴양지 플로리다는 겨울에도 인기다. 보스톤에서 올란드행 항공기는 왕복 200달러, 성수기에는 3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스피릿 항공을 이용하면 3일 일정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면 왕복 125달러의 저렴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5일 일정의 경우 수요일과 일요일 출발편을 이용하면 135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 예약 - 스피릿 항공

〈시애틀〉 - 217달러

일반적으로 보스톤에서 왕복으로 300달러인 항공권을 지금 구매하면 200달러에 구매할 수



연말 시즌 항공권은 남아있지 않지만 1월 부터는 왕복 100달러대 항공권은 일부 남아있어 배낭여행족의 구미를 당긴다

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던 제트블루의 196달러 항공권은 지난주에 매진이 되었지만 200달러 초반대의 가격은 아직 남아있다. 1월 18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은 최저 217달러이며, 한주 전 항공권은 225달러(델타항공)의 항공권이 남아 있다.

* 예약 - 익스피디아

〈아바나〉 - 240 달러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아바나는 미국에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다. 쿠바여행이 허가되고 나서 아바나 행 항공권은 여전히 비싼 가격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경쟁사가 많이 생겨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 있다.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할 경우 1월 내내 240달러 내외로 다녀올 수 있는데, 비슷한 거리를 플로리다 행보다 가격이 높지만, 보스톤에서 더 가까운 몬트리올

이 350달러 선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여행 치고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특별한 해외여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바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스톤에서의 직항로는 없다.

* 예약 - 아메리칸 항공

* 모든 항공권은 22일 기준 직항노선(아바나 제외), 22일 이후 가격변동 및 남은 좌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큼

* 최저 가격 기준, 항공사 정책에 따라 추가 수화물에 대해 추가 과금이 필요할 수 있음

〈항공권 구매 사이트 URL〉

- 익스피디아 <http://www.expedia.com/>
- 스피릿항공 <http://www.spirit.com>
- 제트블루 <http://www.jetblue.com>
- 아메리칸항공 <http://www.aa.com>
-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핵심적인 기술로 디자인과 프렌드십을 제공하는 전문 네일샵입니다.

저렴 수강료 특별할인 가격 (10월 25일)

성경 중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생들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www.bcnailschool.com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bcnailschool.com

주말 미술교실을 위한 열정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미술 작품을 배우고 기쁨을 느끼는 기회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공예품 제작

월요일 및 월요일 저녁

수업 시간: 10월 25일(일)부터 11월 15일(일)까지

(연세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East Boston Mass Art. 학사)

78 Millis Street #103, Boston, MA 02101
bena76@gmail.com **781.729.8868**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견본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유대인, 이슬람인 "이슬람 혐오 반대" 한 목소리

8명의 유대인 및 이슬람 대표자 차례로 연설하며 거리행진 유대인 참가자들 "침묵은 범죄"라며 자성의 목소리 높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없어야 합니다.” 유대인 및 이슬람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보스톤 지역 내 시민운동가와 시민들은 12일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 앞에서 전 세계적인 이슬람 혐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석자들은 주 의사당 앞에서 30분간 집회를 가졌다. 이후 유대인의 축일인 하누카(Chanukah)의 8개의 촛불을 상징하는 8명의 연사들과 시민들은 보스톤 커먼과 다운타운 크로싱, 그리고 보스톤 시청 등을 돌며 연설을 가졌다. 이날 연설에서는 이슬람 및 유대교 종교 지도자, 사회운동가, 예술가 및 팔레스타인 출신의 하버드 대학생 등 8명이 차례로 연설에 참가했다.

이날 8인의 연사 중 한명인 이슬람 종교인 이맘 압둘라 씨(알라 찬양 모스크, 록스버리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슬람을 악마화시키고, 이슬람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랍인들을 타겟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

다” 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인 대표로 나선 JVP 랍비 혐의회의 레오나 아벨슨 씨는 “우리 조상은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보호를 대가로 우리들의 전통과 언어를 포기시키려 했을 때 언제나 저항했다” 며 이슬람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문제가 유대인에게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행진에 참가한 시위 참가자들은 “침묵하는 것은 범죄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저항한다”, “촛불 아래 두려움은 없다” 등의 피켓을 들며 거리를 행진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휴렛 팩커드, 폭스 TV를 비롯한 기업들도 이슬람인들을 위협하는 존재라며 열변을 토했다.

일반 참가자인 로니 밀러 씨(회사원)는 “나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이슬람 차별의 문제는 나와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다” 며 참가 이유를 답했다. 그는 특



이날 시위에는 유대인과 중동계 무슬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이슬람 혐오 반대를 외쳤다

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강조하며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며 “나와 같은 개개인의 시민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말했다.

멜리카 리스단 (북미 이슬람 서클 보스톤 지부장)씨는 유대인과 아랍계가 하나되어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 중에서도 일부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잘못된 정보가 실재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킨다” 며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한국인 독자가 있다면 WhyIslam.org에 접속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유대교 축일 중 하나인 하누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시위는 전세계 25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유대인과, 아랍계 이슬람 뿐만 아니라 흑인 인권단체 회원들과 동남아계 이슬람 등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친구 서비스 위원회, Black Lives Matter 등 보스톤 내 시민단체 11곳이 후원했

다.

〈8개 조항 선언〉

1. 우리는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각 정부의 이슬람과 아랍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감시 사찰을 규탄한다.
3. 우리는 이슬람 혐오와 아랍인 인종차별이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에 이용되고 있음을 직시한다.
4. 우리는 반이슬람과 인종차별 정책을 시도하는 모든 정부수집에 대해 저항한다.
5. 우리는 인종 차별 정책에 중지부를 찍는다.
6.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슬람을 악의 축으로 묘사하고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미 정부의 정책에 맞선다.
7. 우리는 시리아 난민을 환영하고 이민자와 난민자의 권리향상을 지지한다.
8.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스탠딩 록 부족을 지지한다.

itshunne@bostonkorea.com



이날 시위에서는 랍비 혐의회의(유대계), 이슬람 종교자, 예술가 등을 비롯한 8명의 유대계, 이슬람계 출신이 차례로 대표자 연설을 진행했다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장애
- ④ 만성 편두통, 비만,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 노인, 임산부
- ⑧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상담
- ⑨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담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hwan Kim DPM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트럼프 반대 평화시위 BC 학생들이 징계

징계위원회 학생들에게 퇴학까지 줄 수 있어 사전에 학교 승인 없이 비공식 학생 단체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 보스톤 칼리지 대학생 7명이 학교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에는 퇴학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스톤 칼리지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학생 모임이라는 비공식 단체는 최근에 보스톤 칼리지 캠퍼스에서 2번의 집회를 개최했다. 11월 14일에 있었던 집회는 자발적으로 주최한 집회였으며, 12월 1일에 있었던 집회는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전체 대학교 집회의 일환이었다.

집회에서 학생들은 보스톤 칼리지 오프라인 플라자 앞에 모여 촛불과 함께 피켓 등을 들고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내고자 한 것이다.

보스톤 칼리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에

대한 학교 정책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징계를 받게 될 7명 중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게 된다. 다른 3명은 교직원과 면담을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게 될 예정이다.

징계 위원회가 소집되어 판결을 내릴 경우 퇴학 조치까지 내릴 수 있지만, 보스톤 칼리지 대변인은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해 퇴학을 당할 가능성은 낮다” 고 말했다. 다만 “학교 측은 캠퍼스 내의 시위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적용 받는 기준과 규칙을 이 학생들(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4명)에게도 적용할 권리가 있다”



보스톤 칼리지의 트럼프 반대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시위였다

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사라 운쉬 법륜 차장은 “보스톤 칼리지의 수치라고 말하고 싶다. 다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현재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 며 보스톤 칼리지를 비판했다.

보스톤 칼리지에서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학교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공식 단체로 신청을 했다가 수 차례 거절 당한 것을 보고 단체 등록을 시도하지 않았다.

jsi@bostonkorea.com



메인 주의 한 가스 회사가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음성 사서함 안내문을 사용하고 있다

가스 회사, 트럼프 지지자에게는 안 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메인 주에 위치한 액화 석유 가스(LP gas) 공급회사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남겼다. 다른 가스 공급 회사를 찾으라는 것이다.

터너 엘피 가스의 사장인 마이클 터너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에 회사 음성 사서함 안내문을 바꿨다고 말했다. 터너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액화 석유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녹음했다.

터너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조만간 비즈니스를 접고 은퇴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터너는 “대통령 당선자는 비열하고 비기독교적인 사람이다”라며 “당신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더라도 굳이 나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그럼 배달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터너 엘피 가스에 전화를 하면 “터너 엘피 가스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에 대한 천박한 행동과 말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길 권합니다. 가격은 한 병에 110달러로 유지되며 배달 시에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밥,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편, 특별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Seoul or Seoul in Bo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6888
SeoulFoxBar.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공, 리얼터



주책,론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8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9K(김주)



보스톤으로 돌아온 에드가 앨런 포 기념품 판매부터 기념동상까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천재 시인이자 추리소설 창시자인 에드가 앨런 포가 한때 '보스톤 니안'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포는 1809년 보스톤에서 출생하여 1849년 볼티모어에서 번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미국의 셰익스피어'라는 지금의 명성과는 상반된 음울한 삶을 살았다.

문학에 대한 이견 탓에 보스톤 문학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포는 보스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걸출한 작가의 고향이면서도 보스톤에서는 에드가 앨런 포에 대한 기념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보스톤에 2014년 10월 에드가 앨런 포를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졌다. 흥미롭게도 그 기념비 프로젝트는 동상이 위치한 보일스톤가의 한가계에서 작가의 미니어처 버블헤드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가 앨런 포 동상이 잘 내다보이는 보일스톤가 160번지에 위치한 바르테비안(Bartevian)은 1910년부터 시작된 비영리사업체이다. 1층의 카운터에 앉아 가게를 돌보는 파트리시아 바르테비안(92)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여동생과 함께 할리우드에서 활동했던 바르테비안은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인근의 카버 스트리트 62번지에 살았던 유명 작가 에드가 앨런 포를 기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르테비안은 지난 1월 보스톤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에 포에 대한 아무런 기념비도

없으니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포의 생가는 1959년에 철거되었으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 바르테비안은 1989년 인근 건물에 상패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2009년에는 그 지역을 에드거 앨런 포 광장 (Edgar Allan Poe Square)이라고 이름 짓도록 시에 요청하는 일에 협력했다. 이후 그녀는 2010년 설립된 에드가 앨런 포 재단에 재무로 합류했다. 에드가 앨런 포의 동상 기금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이 재단을 위해 바르테비안은 포와 관련된 기념품 - 포 게임카드, 포 단추, 포 티셔츠, 포 버블헤드, 포 머그컵, 포 책 - 들을 가게에서 팔았다.

2014년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고, 공모전에서 스테파니 록낙 (Stefanie Rochnak)이 입상하여 현재의 조각상이 세워지게 되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에서 포는 까마귀 한 마리

와 함께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포가 들고 있는 열린 가방에서는 종이 더미들이 쏟아지고 있다. 작품의 제목은 '보스톤으로 돌아오는 포' (Poe Returning to Boston)이다.

현재까지 판매되는 포 기념품의 수익금은 동상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게의 2층은 무료로 재단 사무실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바르테비안은 자신의 건물과 가게가 지속해서 비영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해 놓았다.

에드가 앨런 포 재단의 회장인 라플레 (LaFleur)는 "바르테비안의 직접적인 홍보가 없었더라면 전혀 다른 프로젝트가 되었을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곳은 영원히 포를 위한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sun@bostonkorea.com



보스톤 출생의 에드가 앨런 포의 기념비 프로젝트는 동상이 위치한 보일스톤가의 한가계에서 작가의 미니어처 버블헤드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딸인 이방카 트럼프

이방카에 "네 아빠가 나라 망쳐" 소리친 탑승객 기내서 쫓겨나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미국 존 F 케네디공항 항공기에서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35)에게 다가가 비난을 퍼부은 남자 탑승객이 기내에서 쫓겨났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남자 탑승객은 뉴욕발 플로리다행 제트블루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기내에 탑승한 이방카에게 "너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왜 이 항공편을 타고 있는가? 전용기를 타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 이방카는 남편 재레드 쿠슈너, 세자녀와 함께 타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 남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크레용을 주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 했다고

TMZ 매체가 전했다. 이 같은 뉴스는 TMZ 보도 이후 미국 언론이 인용해 전하면서 급속히 퍼졌다.

남자 탑승객은 결국 항공기에서 내리게 됐고, 당시 승무원에게 "내가 의견 좀 밝혔다고 쫓아내느냐"고 소리쳤다.

제트블루 측은 AFP 통신에 "탑승객이 기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승무원이 판단하면 내리게 할 수 있다"며 "특히 상황을 비행 중 악화할 것으로 보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는 "이번 경우 남자 탑승객을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jjtan@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폰도 오픈 하우스
(11월 20일 일요일 11시~12시 30분)

Townhouse In Acton

1,30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 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트럼프, '중 강경' 나바로 신설 국가무역회의 의장 지명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이끌 국가무역회의(NTC)를 백악관에 신설하고 중국과의 무역에 강경 노선을 주장한 피터 나바로(67)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를 의장으로 지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인수위는 나바로 교수가 "무역적자를 줄이고 성장을 확대하며 미국의 일자리 엑소더스(탈출)를 막기 위해 필요한 무역 정책을 개발"할 비전을 갖춘 경제학자라고 치켜세웠다.

나바로 교수는 한때 투자 조언가였으며 다수의 대중 저서를 집필했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

는 그날 : 탐욕에 눈 먼 거대한 용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지구의 종말이 시작된다'(Death by China)를 공동 저술해 대표적인 반 중국 강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나바로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 중국 수입 및 중국으로 인한 환경 문제, 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측의 침해 등 우려를 강조해 왔다.

WSJ는 나바로 교수를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맹렬한 회의론자(ardent skeptic)"로 일컬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내에 새로 만든 NTC는 국가안보보장회의(NSC)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으며 무역 정책은 물론 제조업 촉진 정책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로 교수를 필두로 한 이번 NTC 신설은 트럼프 당선인이 앞

로 중국과의 무역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을 시사한다고 WSJ는 평가했다.

나바로 교수는 대선 기간 도중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전반에 조언을 했으며 그의 정책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baebae@news1.kr



피터 나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

트럼프, 규제완화 특별자문관에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임명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칼 아이칸(80)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을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 자문관으로 선임했다. 아이칸 회장은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투자자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아이칸은 첫 시작부터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며 "그는 천재적인 협상가일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나라의 규제 완화에 대

한 그의 도움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이칸은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기업가들은 새로운 규제 때문에 1조달러(약 1195조원)를 낭비했고 서류 작업에만 7500억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젠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하고 우리의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이칸의 순자산은 160억달러(약 19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칸이 맡게 될 특별 자문관직은 무보수직으로 향후 그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칸은 이미 인수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인선에도 입김을 넣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ijy@news1.kr



칼 아이칸(80)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대못'... "해상 에너지 시추 무기한 금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백지화 "불가능"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20일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해상에서의 원유, 천연가스 시추 행위를 무기한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에너지 투자' 공약 실현을 어렵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관할 북극해와 대서양 일부 지역에 대한 원유 및 가스 기업들의 진출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53년 제정된 'OCSLA(외부 대륙붕 법안)'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대륙붕의 판매 및 임대 금지할 수 있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한번 결정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이라도 번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입장이 난감해졌

다. 그동안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 같은 조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환경단체들이 이 조치를 반겼지만, 에너지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위해 반드시 해상 시추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에릭 밀리토 미국석유협회(API) 업무팀부문의 사장은 성명을 통해 "원유, 천연가스 생산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jh.lee@news1.kr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ft@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기 진품상차이 30% 이상
 100% 브랜드, 정품, 정품, 정품
 100% 브랜드, 정품, 정품, 정품
 100% 브랜드, 정품, 정품, 정품

문의 617.248.3131 Happydol@y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섬삼짱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내년 유가 55불 넘으면 에너지업계 3년래 첫 현금유입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내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55달러를 넘으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3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유력 원유컨설팅업체 우드맥켄지가 전망했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톰 엘라콧 우드맥 기업리서치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비용 절감과 유가 반등이 맞물리면서 에너지 업계의 재무압박이 완화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부분 원유 및 가스 업체들의 내년 기반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의 생존에 필요했던 손익분기점의 현금흐름이 절반을 줄었다"고 말했다. 엘라콧 대표는 "신중하게 보더라도 U자형 투자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체들은 유가 상승분을 지난 2년 동안 축적한 막대한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내년 에너지 업계의 자본전략이 신중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에너지 업계

의 투자 사이클이 저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년 새로운 유정 개발과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성장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자신감은 최근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기인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의 감산 결정으로 브렌트유는 최근 몇 주 사이 배럴당 57달러까지 치솟았다. 유가가 배럴당 55달러만 넘으면 60대 에너지 기업들로 현금 유입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드맥켄지는 분석했다.

우드맥켄지는 현금흐름의 회복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내년 평균 유가가 50달러를 넘으면 투자자 25%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엑슨모빌이나 로얄더치셸과 같은 대형 업체들의 투자는 8%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엘라콧 대표는 투자가 대부분 미국의 퍼미언분지와 브라질의 해양 유전지역처럼 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드맥켄지가 조사한 60개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은 내년 평균 2%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4년 이후 새로운 유정 개발에 대한 지출이 40% 넘게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증산은 생산성이 그만큼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FT는 해석했다.

우드맥켄지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에너지 업체들의 부족한 자본과 수익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우드맥켄지는 덧붙였다.

kimyg@yna.co.kr



미국 텍사스주 앤드류 인근 셰일 시추설비

금값 약보합...달러 하락세 불구 반등 실패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금값이 이틀째 하락세를 이었다. 달러화 가치가 14년 만에 최고치에서 후퇴했음에도 금값은 상승반전하지 못했다.

21일 내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약보합 수준에 머문 온스당 1133.40달러에 거래됐다. 전날에는 0.8% 하락한 1133.60달러에 장을 마친 바 있다.

이날 주요 6개국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

중 한때 0.47% 하락한 102.77을 기록했다.

금값은 이달 들어 3.2% 하락했다. 연일 이어진 달러 강세는 금값에 부담을 줬고 금리인상은 금과는 달리 이자가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높였다.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따른 대규모 재정부양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계획도 달러 강세를 촉진하며 금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3월물 은 가격은 0.7% 하락한 온스당 16.00달러를 기록했다.

내년 1월물 백금은 1.3% 내린 온스당 911.70달러에 장을 마쳤다. 내년 3월물 팔라듐은 2.0% 하락한 온스당 657.45달러를 기록했다.

acenes@news1.kr



미국 드론 배송 업체 플러티가 편의점 세븐일레븐 상품들을 고객의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美 드론 첫 상업 배송... 플러티 편의점 용품 가정 배달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의 드론 배송 서비스 업체 플러티가 19일 드론을 이용해 감기약과 데운 음식 등 편의점 세븐일레븐 상품들을 고객의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바다 주에 본사를 둔 플러티는 77건의 자동 배달 서비스를 마쳤다고 밝혔다. 자사가 미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정식 상업 배송 서비스를 한 최초의 업체가 됐다고 자평했다.

플러티의 최고경영자(CEO) 매트 스위니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첫달에 상업적인 정식 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업체는 11월 주말 동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 가정으로 배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문받은 상품은 특수 포장된 뒤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장착한 드론에 실렸다. 드론은 공중으로

날아가 상품을 각 가정 앞에 떨어뜨렸으며, 배달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플러티와 세븐일레븐은 드론 배달 서비스를 내년에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첫 상품 배송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영국 캠브릿지 인근의 고객에게 "도서를 클릭한 지 13분만에 배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테스트해온 아마존 측은 미국에서 자동 배송은 규제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윙(Wing)'으로 불리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도 드론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allday33@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랑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수 가능.
 주방기술자 파랑돌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랑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한국 파랑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 | | |
|---------|---------|----------------|
| 치킨양념 소스 | 참깨 소스 | 과전 파우더 |
| 치킨간장소스 | 불고기 소스 |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
| 치킨 파우더 | 순두부 시즈닝 | 부대찌개 소스 |
| 치킨 염지제 | 순두부 다대기 | 갈비 소스, 저육볶음 소스 |
| 떡볶이 소스 | 샤브 육수 | 김치찌개 소스 |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랑돌

파랑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창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등심,곱창,새우, 오징어,오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싱싱한 회
- 히바치
- 바베큐
안창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탄핵심판 쟁점 5가지로, 최순실·안중범·정호성 증인채택

첫번째 준비기일... 쟁점 정리하고 증인·증거 논의
헌재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 행적 시각별로 밝혀라"

(서울=뉴스1) 안대용, 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2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건의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0) 등 증인 3명과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3일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주재했다.

헌재는 우선 국회 측이 소추의결서에 적은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유형별로 정리해서 보겠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헌재가 가진 유일한 선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며 "재판부에서도 종전 선례가 옳다고 보고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유형은 △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 행위 등이다.

아울러 헌재는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어간 최순실씨(60)와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비서관(47)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재에 최씨 등의 공소장과 국회회의록, 국정조사록, 언론 기사 등 총 49가지 서증을 증거로 제출했고, 박 대통령 측이 증거 전부에 대해 동의하고 내용을 다 투쟁했다고 밝히면서 헌재가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여기엔 한 매체가 보도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관련 보도가 포함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낸 대통령 말씀자료 등 3가지 증거도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동의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28명의 증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가운데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3명을 채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어 국회 측이 소추사유로 기재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이라며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수사기록 등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헌재에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특검팀에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증조사 신청도 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통지했다.

헌재는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다음

날인 16일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박 대통령 측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소송지휘를 요청한 부분은 "변론기일 전에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류나 내용을 청구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탄핵심판 관련 소송서류는 법정 제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탄핵심판 첫 재판으로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의 첫 대면으로 관심을 모았다.

탄핵심판의 '검사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선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56·17기)과 더불어 민주당 탄핵추진단장 이춘석 의원(53·20기),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 김관영 의원(47·31기)이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황정근 변호사(55·15기)를 비롯해 이명웅(57·21기)·신미용(57·31기)·이용규(52·23기)·문상식(44·33기)·이금규(43·33기)·최규진(45·36기)·김현수(41·36기) 변호사가 심판정에 나왔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이중환 변호사(57·15)를 중심으로 서성건(56·17기)·손범규(50·28기)·채명성(38·36기)·전병관(52·22기)·박진현(32·변호사시험 2회)·황성욱(52·22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다만 탄핵심판 이해관계인인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두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dandy@news1.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국민의당 김관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 행적, 헌재에서 밝힌다

헌재 "당일 행적 시각별로 남김없이 밝혀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헌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별 행적 및 입증자료 제출을 피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요청했다.

헌재는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생명권 보장'을 기재했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헌재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헌재는 "세월호참사가 2년이 지난 긴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따라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기사나 청문회를 보면 (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내용과 수령 시간,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것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을 맡은 이중환 변호사(57·15기)는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 제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진술)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박한철 소장



박근혜 대통령

(63·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

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진행했다.

dosool@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DEC. 23 - DEC. 29, 2016

STUFFED SQUID Need a fresh idea for your Christmas table? It's Healthy, unique, and pretty appetizer for you and your guests.

H마트와 함께 도전하는 새로운 요리, 오징어 순대! 크리스마스 만찬에 조금 더 특별하게 통통한 오징어 순대로 식탁을 풍성하게 장식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PRODUCE OF KOREA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4cmt/box **\$24.99**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3.99**

PRODUCT OF CANADA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0.88**

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 **\$0.99**

Louis Root 연근 lb. **\$1.88**

PRODUCT OF KOREA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lb. **\$1.49**

Purple Sweet Potato Hawaii 하와이산 보라색 고구마 lb. **\$1.99**

Packed Garlic 딱마늘 5cmt/pkg **2\$3**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lb. **\$1.49**

Gobo 우엉 lb. **\$1.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Ox Tail 생 소꼬리 lb. **\$10.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lb. **\$2.4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비비큐용 돼지 갈비 lb. **\$3.49**

FRESH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안심 lb. **\$7.99**

FRESH Beef Heel Meat 소사태 lb. **\$7.99**

FRESH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정기미 Kyung Gi Medium Grain Rice 16 lbs. **\$9.99**

SUNYUP Premium Roasted Sesame Oil 수향길 5.7oz x 100c/box **\$9.99**

CI 햇반 박스 CI Cooked White Rice 7.4oz x 10ea/box **\$14.99**

Q1 Korean Bread Pancake Mix 규림 빵/포미믹스 1.1lb x 10ea/box **\$3.99**

FREE 2017 HMART CALENDAR FOR SMART CARD MEMBERS!
 2017년 H마트 달력을 스마트 카드 고객에 한해 무료로 드립니다!
 행사기간 : 소진시까지 / 한정수량 증정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0 x 40s **\$5.99**

FRESH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2.7-3.5 lbs. - pkg. **2\$9.99**

FRESH SHIKI Premium Unagi Kabayaki 우나기 10oz. pkg. **\$8.99**

FRESH Salted Mackerel 차변고등어 10oz. pkg. **\$3.99**

FRESH Cooked Snow Crab 산호우 크림 10oz. pkg. **\$9.99**

FRESH Oyster Meat Cup 오징어 8oz. pkg. **\$5.99**

NE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새마을 쌀 15 lbs. **\$9.99**

팔도 짜장면 PALDO Noodle with Roasted Chajang Sauce 7.1oz x 4ea / pkg. **\$6.99**

KADOMA Pure Sesame Oil 거두어 칠기유 598 cc. **\$14.99**

GOMPYO All Purpose Wheat Flour 고포유 밀가루 5.5 lbs. **\$3.99**

S&B Golden Curry S&B 골든 커리 All varieties 5.5oz. **\$2.99**

혜오름 만두 HYOOREUM Dumpling 2.55 lbs. **\$4.99**

시라키그 사누키야 우동 SHIRAKI Japanese Style Sarukiga Udon Noodles 2.75 lbs. **\$3.99**

네슬레 녹차 킷Kat NESTLE Green Tea KitKat 4.7oz. **\$4.99**

HAIOREUM Citron Tea with Honey 헤오름 유자차 2.2 lbs. **\$4.99**

MMEL Biolee Yogurt Flavored Soft Drink 매일 바이오밀 요구르트 60ml x 25ea/pkg. **\$2.99**

HAIOREUM Banana Flavored Milk 헤오름 바나나맛 우유 200ml x 8ea / pkg. **\$4.99**

SCOTT Extra Soft Reddress Tissues 스코트 휴지 1200/pkg. **\$4.99**

포지푸시 보온 밥솥 POSIPUSH Cooker & Warmer NS-19C1820 10c. per White - ea. **\$94.99**

THEGLASS Drinking Mug & Jar 데글라스 텀블러 & 저장용기 1.1L 15oz. x 10ea / 2pac/box. **\$5.99**

COOKING LAND Kitchen Tools 쿠킹랜드 스테인드 스텐 사각 뒤지개 & 휘핑 스푼 5pac/2.1oz. High End Handing 5oz. **\$2.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special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special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는 판매 과정에서 가격,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한정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 판매 상품에 대한 구매는 특별 판매 상품에 대한 구매가 아닙니다. 모든 H마트 매장은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모든 H마트 매장에서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모든 H마트 매장에서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H마트는 모든 H마트 매장에서 모든 주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가장 효율적 집행 방안 검토"

檢 압수수색 당시 보안상 이유 임의제출 형태 그쳐
특검, 청와대 거부 논리 깨기 위한 법리 검토 고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가장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시도됐으나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앞서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 등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마다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청와대는 전날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방침과 관련해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대

상자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청와대 내 회의 장소 등으로 사용되는 연부관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품 대상을 검찰이 불러주면 청와대 측이 관련 자료를 내어주는 임의제출 형태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중요 증거 등이 이미 삭제·폐기됐을 가능성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더라도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특검은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20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의 심포

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장 탁경국 변호사는 "관공서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아도 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영장 집행이 비자발적으로 무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ho84@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 정유라 지명수배... "도피 도우면 형사처벌" 엄중 경고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에 들어왔어야"

(서울=뉴스1) 김수완, 이후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60·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지명수배를 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검팀은 정씨를 숨겨주거나 정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특검보는 "앞으로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 정씨의 위치를 독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0월30일 갑작스레 귀국한 후 정씨는 줄곧 독일에 체류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가 독일을 벗어나 덴마크 등 유럽 내 제3국에서 승마대회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변호인과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 모녀가 독일에 8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 모녀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7)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어 "변호사로서 예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정도(正道)라고 정씨에게 말했다"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진 귀국과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allday33@news1.kr

獨검찰 "정유라 소재 몰라"...8000억 자산보도 확인거부

특검, 정씨 지명수배..."도피 도우면 형사처벌" 경고

(서울=뉴스1) 김수완, 이후민, 김혜지 기자 =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0)의 소재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 모녀가 독일에 거액의 재산을 숨겨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나다 니젠 프랑크푸르트 검찰 대변인은 22일 정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뉴스1의 이메일 질의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며, 정씨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사법 공조 요청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니젠 대변인은 다만, 한국 특검의 요청이 있다면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원칙적으로 협조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현재 정씨와 나머지 피의자 3명을 같은 돈세탁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나, 최씨가 독일에 유령법인을 설립해 차명 보유 자산이 8000억원에 이른다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앞서 최씨와 정씨, 30세 한국인 남성, 독일인 남성 1명을 최씨의 헤센 주 슈미텐 소재 법인이 벌인 돈세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지명수배를 하는

등 신병 확보 조치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정씨를 숨겨주거나 정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전일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 특검보는 "앞으로 정씨에 대해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또 정씨의 소재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 정씨의 위치를 독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가 지난 10월30일 갑작스레 귀국한 후 정씨는 줄곧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가 독일을 벗어나 덴마크 등 유럽 내 제3국에서 승마대회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변호인과 국내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된 얘기

를 나누는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면서 관련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 모녀가 독일에 8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 모녀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7)는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어 "변호사로서 예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정도(正道)라고 정씨에게 말했다"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진 귀국과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allday33@news1.kr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유연씨)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k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Single Family
5 Duxton Lane Acton MA
9,547sqft, 9.13 Acres 5 Bed
4.5 Bath
Asking **\$1,489,000**



Condo
28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동문형의 2 Bed 1 Bath 870 sqft
Condo 2 parking space
Asking **\$448,000**



Condo
21 Westland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있는 2BR의 Best
Investment Condo. Best Location, Easy,
Parking, T-Access에 가까운 21 미터 19년
Asking **\$291,000, \$399,000**



한식&일식 식당
Physical 상태 양호, Full Equip,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monthly turnover.
Asking **\$700,000**

LISTINGS

- 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1,800 SOLD**
- 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2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3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4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5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6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7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8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1.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2.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3.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4.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5.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6.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7.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8.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99.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 100. Full Profit 3BR/1 Bath/1047 sqft, Full Bath Room **\$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면적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7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easings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무소영입함.
좋은 임대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쪽에 위치
Full Liquor, 양장업 수리
넓은 공간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청문회도 '모르쇠' 일관한 우병우, 특검서 치열한 수사움 전망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결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여전히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를 주시하며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증언을 살펴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0·구속기소)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눈감아주거나 적극적으로 조력해왔다는 등의 의혹으로 이날 결국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우 전 수석의 이런 태도는 특검팀 수사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큰 것은 최씨가 주요 국정 현안에 개입해 각종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혐의다.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고 민심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 전 수

석은 최씨가 정부 요직인사·정책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다.

특히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최씨는 현재도 모른다, 언론에서 봤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최씨 측근 차은택씨(47·구속기소)에게 김기동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법적 조력자로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차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검찰 소환조사 대응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민정수석비서관실)는 이런 거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흘려줘 70억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도 "70억 인지, 75억인지는 받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정윤희 문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를 마찬가지였다.

우 전 수석은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재직했던 김

주현 대검 차장을 통해 정윤희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필요상, 업무상 통화했다"고 항변했다.

또 해경 압수수색 당시 광주지검 윤대진 형사2부장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가 아니라 상황 파악이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중요한 수사를 하며 국가기관(검찰, 해경) 기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파악만 해 봤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주장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광주지검 수사팀의 세월호 수사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상황실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초기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정윤희 문건' 파동 무마를 지시하고 관련 언론인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정윤희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은 결국 검찰선에서 '문건 불법유출' 사건으로 정리돼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는 수준에서 끝이 났다.

특검팀은 현재 우 전 수석의 직무유

기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우 전 수석은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공을 특검으로 넘겼다.

또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향후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방침 하에 청문회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서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결국 특검팀이 얼마나 많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다방면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첩보를 받아 이를 분석, 수사 방향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검찰에서 건넨바는 특별감찰반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모두 마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화면이다

'레이저' 우병우 '당당한' 청문회... 의혹 부인 일관 "사실 증언"

특위위원 파상공세에도 '꿋꿋한' 모습
특위 위원장 지적에도 "할 말 해야"

(서울=뉴스1) 조규희, 김정률, 서미선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시종일관 당당한 자세로 여야 특위위원들의 파상공세에 대응했다.

검찰 출석 당시 질문한 여기자를 쏘아보는 듯 쳐다봐 '레이저 우병우'라고 불린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단호하게 단답형 대답으로 일관했다.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최순실은 현재도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발언이 나오자 청문회장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다.

관련 의혹을 특검에서 조사 받았냐는 질문에는 "수사 받았"고 답했다.

여야 특위위원들의 계속되는 의혹 내지 질타성 발언에 "의원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을 말하라는 촉구에는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증인석에서 끝은 자세로

질의하는 의원과 눈을 맞추며 답변을 이어갔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답변 태도와 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러나 이 자리는 진상 규명 자리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리라 저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며 할 말을 이어갔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5차 청문회는 위증교사 논란으로 여야 특위 위원간 고성이가 오가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한시간여 계속된 여야 특위 위원들의 설전을 무표정으로 물끄러미 지켜보기도 했다.

playingio@news1.kr



계속된 '말바꾸기 의혹' 조여옥 대위... 위증 논란 증폭

오전에 軍과 연락안했다던 조 대위 오후에 말바꾸

(서울=뉴스1) 박상휘, 서미선 기자 =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의 계속된 말바꾸기가 청문회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위는 22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 미국에서 귀국 후 군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만났는지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대위의 이 같은 발언은 계속 바꿨다. 조 대위는 귀국 이후 국회 출입과 동행인 문제 등으로 군측과 직접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말바꾸기에 조 대위는 오후가 돼야야 국방 국외교육장 교에게 연락했다고 부연했다.

조 대위는 또 지난 18일 귀국 이후 청문회에 출석하기까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으나 추후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고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놨다.

조 대위는 미국에 체류할 당시 기자회견을 스스로 자청해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은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말을 바꿨다.

이날 조 대위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의무동은 대통령 진료를 전담하는 곳인 반면,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곳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말을 바꾼 것 아니

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청와대 의무실장과 엇갈리는 증언도 했다. 조 대위는 이날 박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직원들에게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 주사를 놔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이선우 의무실장은 청문회에서 태반주사는 오직 박 대통령에게만 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조 대위의 증언에 신빙성을 느끼지 못한 국조 특위는 조 대위의 출국금지를 검토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anghwi@news1.kr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샤부샤부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곰장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피전/순두부찌개/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대찌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비밀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황태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당장찌개/계란찜/공기밥/피전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0% OFF



투정하고 맛있는
수라 BBQ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비박 '보수신당' 성패 키워드...38석 · 중립지대 설득 · 반기문

1차 목표는 국민의당 38석 넘어 원내 제3당 지위 확보
중립지대 의원 및 반기문 합류시 보수 대표주자로 발돋움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신당 창당을 결의하면서 신당의 명칭을 가칭 '보수신당'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당(38석) 의석을 넘어선 원내 제3당이 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22일 현재 분당 결행을 선언한 비박계 의원들 가운데 오는 27일 실제 집단 탈당할 의원들의 숫자는 33명으로 확인된다. 전날 비박계 측에서 발표한 것은 35명이었지만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 잔류 입장을 밝혔고, 심재철 의원도 탈당을 보류한 상태다.

물론 33명이라는 숫자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20석을 가뿐히 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신당에 있어 원내 제3당이 주는 의미는 상

당하다. 우선 38명 이상이 탈당해 원내 제3당의 지위를 확보하면 향후 보수세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서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수신당은 신당의 노선과 관련, 안보는 정통보수 입장을 견지하고 경제·노동·복지·교육 분야는 개혁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친박(親박근혜)계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개혁적 보수세력' 대 '가짜보수' 프레임 대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부정적인 중도 보수세력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박계 신당의 안착 여부는 38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38석 이상의 의석으로 원내 제3당이 되어 무너진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책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보수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박계는 분당 결행 시점인 27일까지 탈당을 망설이는 중립 성향의 원내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 상태다.

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만났다"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이 드러나고, 지금 새누리당으로서 대선후보조차 낼 수 없는 불임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거 이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 넘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수신당은 충청권 의원들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움직임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수신당은 기존 탈당파에 중립 성향 의원들이 합류하고 최종적으로 반 총장과 충청권 의원들까지 합류하면 명실상부한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로 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야권과 해볼 만한 싸움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수신당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충청 지역 의원들 중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반 총장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다수"라며 "우리는 건강한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구심체 역할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함께할 수 있는 공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ykjmf@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박계 긴급회의에서 새누리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7년 박근혜캠프 원조 친박들...10년후 분당 파국 결별

주류-비주류 핵심, 10년전 차중심으로 한솔밥
남보다 못하게 서로 헐뜯다 끝내 이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질곡의 정치사 속에서도 쪼개지지 않았던 보수정당, 새누리당이 끝내 분당을 맞는다. 전날 대규모 탈당을 결의한 비주류 의원들은 22일부터 구체적인 분당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분당 사태의 핵심 주인공들은 모두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이른바 '원조 친박' 인사들이다.

한때 한솔밥을 먹던 핵심 친박 인사들이 10년후 오늘날 완전히 결별한 것.

새누리당의 전신 정당 역사는 19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에서부터 시작한다. 민자당을 거쳐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자민련이 이 과정에서 흡수통합됐다.

현 주류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과 탈당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에서 한솔밥을 먹었다.

또한 비주류 다른 축인 유승민 의원은 한나라당이회창 총재 시절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드라마'의 시작은 2006년 말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박근혜 진영으로 양분돼 있었다. 대선후보 경선 때문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현 친박계의 서청원·최경환·홍문종·이정현·윤상현 의원 등과 비주류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은 모두 박근혜캠프 핵심 멤버들이었다.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후보 캠프 후원 좌장 역할을, 김무성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총괄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지

작'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는 박근혜 캠프 최전방 공격수였다.

최경환 의원은 상황실장을, 홍문종 의원은 전국조직을 맡았다. 윤상현 의원은 공보단장을 맡았다. 이번에 탈당하는 이해훈 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2007년 원박' 멤버다.

이렇게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친박 계파는 이후 분화를 맞는다.

일단 캠프 당시부터 이명박 후보 대응 방안을 두고 박 대통령과 현 주류 친박, 김무성·유승민 의원 간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한나라당을 장악했을 때 처리된 18대 총선 전 이른바 '친박 학살' 공천에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나란히 낙선했다.

이때 서청원 의원 중심의 '친박연대'(정당)는 18대 총선에서 당선자 14명, 김무성 의원 중심의 '친박 무소속 연대'가 당선자 12명을 냈다.

다만 서청원 의원은 당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천현금 수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을 '친이계의 정치 보복'이라고 말한다.

'탈박'은 김무성 의원이 먼저 한다. 18대 총선 당선 후 김 의원은 한나라당으로 복당, 원내대표에 오른다. 2010년 세종시 이전 법안 처리와 원내대표 수락 여부를 두고 김무성 의원은 모두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슬리고 마이웨이 했다.

유승민 의원의 결정적 탈박 계기는 2011년 디도스 파문 후 대응과 2012년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개정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문고리 3인방' 및 다른 친박 핵심들과 갈등이 노정돼왔다고 한다.

어쨌든 2011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이들은 물리적으로 다시 손을 잡지만 19대 국회 들어 파국의 서막은 서서히 열렸다.

19대 총선 공천 때는 친박계 주도의 '친이계 공천 학살'로 낙선한 김무성 의원은 2012년 4월 재보선, 공천현금 사건 후 원외에 있던 서청원 의원이 그해 10월 10월 재보선으로 원내에 복귀한다.

2012년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로 국정 장악력이 최고조였다. 당 역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친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때 김무성 의원은 비박계 및 구 친이계의 지원을 받으며 세를 넓혀갔고, 친박계는 돌아온 서청원 의원을 비롯한 주류 핵심들을 중심으로 뭉쳤다.

2014년 7월 전당대회에서 양 계파가 일전을 치른 결과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에 올랐다. 최고위원회 내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한 친박계 역시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업고 김 의원을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정현 전 대표는 선수(選數)는 낮지만 말단 당직자 시절 박 대통령에게 발탁돼 수년 넘게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 복심, 입으로 활동했다. 이 정권 초반에는 청와대에서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하고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당선해 원내에 입성했다.

19대 국회 초반부에 물밑에서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를 키우던 유승민 의원이 2015년 2월 원내대표에 오른다.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대표와 원내대표를

장악한 당시 수개월 여권은 연일 살얼음판이었다. 'K-Y 지도부'와 비박계, 청와대-친박계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다.

조원진·이장우·김진태 의원 등 강성 친박, '친박' 공격수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김무성-유승민 의원은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파동 과정에서 결별했으나 이번 집단 탈당 국면에선 다시 손을 잡았다.

김 의원은 국회법 파동 초반엔 박 대통령과 유 의원의 중재역을 자임하다, 막판엔 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20대 총선 공천 역시 원조 친박들간 유대를 결정적으로 끊어놓는 계기였다.

친박계는 김 의원이 천명한 '상향식 공천'을 최대한 무력화 시키려 했고, 친박계 주도의 공천위는 유 의원의 측근 의원들이 대거 짚었다.

공천 막판에 김 의원이 당대표로서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하는 '육새파동'으로 유승민 의원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남겨 유 의원 생활을 도왔다.

이번 새누리당 분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당 내홍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핵심 인사들 사이에 10여년 동안 쌓인 감정의 골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때 동지였던 서로를 '배신자' '8직'이라고 규정하며 나가라고 갈등을 거듭해온 원조 친박 핵심 인사들은 이제 분당으로 완전한 결별을 맞았다.

eriwhat@news1.kr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 | | |
|--|--|
|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Framingham Littleton Maynard Norwood Plymouth Woburn Westborough Whitinsville Wrentham Port | Maine Kennebunk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ewport |
|--|--|

LEXINGTON/BOS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크리스 룡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브롱코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AFC 동부지구 1위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 8년 연속 지구 1위를 차지해 NFL 신기록을 세웠고, 최근 14년 동안 12번이나 지구 1위를 차지하며 패트리어츠 왕조다운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패트리어츠 선수들, 혹은 팬들은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올해 초에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게 된 크리스 룡은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서게 된 감회가 남다르다.

2008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램스에 선택된 룡은 프로 경력 9년차인 베테랑 디펜시브 엔드다. 패트리어츠에 합류하기 전까지 램스에서 8년을 보낸 룡은 매년 정규시즌 17주차 경기가 끝나면 라커룸에서 짐을 정리해야 했다. 룡이 램스에서 풋볼을 했던 8년 동안 램스는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패트리어츠는 18일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12승 2패로 잔여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고, 경기 직후 선수들은 지구 1위를 축하하는 모자와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다. 룡은 더 이상 플레이오프 기간에 집에서 TV로 풋볼 경기를 시청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어떤 선수들은 자신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 TV로 경기를 보는 것조차 싫어한다. 그러나 룡은 매년 TV를 통해 플레이오프 경기를 시청해 왔다. 룡의 동생 카일 역시 프로 풋볼 선수인데, 카일이 속한 베어스도 매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1월이나 2월에 TV로 풋볼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룡은 집 근처 스포츠 바를 찾아 TV로 풋볼 경기를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룡은 “난 보통 마음껏(술을) 마셨다” 고 한다.

룡은 이제 다른 때와는 다르게 1월과 2월을 보내게 되었다. 특히 룡의 동료 패트리어츠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진출이 매년 있어왔던 일이다. 현재 패트리어츠 로스터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기억이 있는 선수들은 탐 브래디, 매튜 슬레이터, 스티븐 고스코스키 밖에 없다.

룡은 “다른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술집에 있었는지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고 말했다.

룡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다. 똑같이 풋볼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에 나서지만 경기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룡은 “이 시기(연말)에 많은 경기를 했지만, 아무도 우리 경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경기지만, 그렇다고 달라



프로 9년차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에 서게 된 크리스 룡은 내년 1월에 술집에서 풋볼 경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지는 것은 없었다” 고 말했다. 시즌 후반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팀의 경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적다.

룡은 “이제 정규시즌이 2경기밖에 안 남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주 경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정말 멋진 일이다” 라고 말했다.

룡이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다. 룡은 2012년에 램스와 4년 동안 4,8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6년에 패트리어츠와 맺은 계약은 1년 237만 달러에 불과하다.

룡은 “내가 이곳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승리의 한 부분이고 싶어서다.

그게 나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의미 있는 풋볼 경기의 일부가 되는 것, 매주 일요일에 경기장에 나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왕정훈 · 이수민, 유럽투어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유럽프로골프(EPGA)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돌풍'을 일으킨 왕정훈(21)과 이수민(23·CJ 오쇼핑)이 올해의 뉴스에 선정됐다.

EPGA투어는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0대 뉴스를 소개했다. 이 중 왕정훈과 이수민, 리하오통(중국) 등 아시아 선수들의 활약이 세 번째로 거론됐다.

EPGA는 '아시아에서 온 선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묶었다. 왕정훈, 이수민, 리하오통 등 3명은 올 시즌 나란히 투어 첫 승을 신고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왕정훈은 시즌 전만 해도 EPGA투어 정규 회원이 아니었지만 5월 하산 2세 트로피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풀시드를 획득했다. 이후 모리셔스 오픈에서도 우승하며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결국 루키 중 가장 많은 상금을 획득해 신인왕에 올랐다.

이수민 역시 선전 인 터내셔널에서 우승,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럽투어에 발을 들인 올 시즌 활약을 펼쳤다. 리하오통도 볼보 차이나오



왕정훈(21)

폰에서 우승, 터키 항공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왕정훈과 마지막까지 신인왕 경쟁을 벌였다.

EPGA투어는 대니 윌렛(잉글랜드)의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을 가장 큰 이슈로 다뤘다. 당시 윌렛은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덕에 대회에 나섰고, 정상에 올랐다.

두 번째로는 헨릭 스텐손(스웨덴)이 디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이 꼽혔다.

이 밖에 21세의 영건 매튜 피츠패트릭의 최종전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우승, 45세의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과 46세 통차이 자이디(태국)의 우승 등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starburyny@news1.kr

박인비-전인지, 올해의 역사적인 순간 1-2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박인비(28·KB금융그룹)와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선정한 올해의 역사적인 순간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LPGA는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린 2016년의 역사적 순간 '톱5'를 돌아봤다.

이중 1위에는 박인비의 명예의 전당 입성이 선정됐다. 박인비는 지난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1라운드를 마친 뒤 명예의 전당에 공식 입성했다. 그는 만 27세 10개월 28일의 나이로 박세리(만 29세 8개월 11일)를 뛰어넘어 역대 최연소 기록도 세웠다.

전인지의 예비앙 챔피언십 우승이 그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전인지는 21언더파 263타를 기록해 역대 메이저대회 최다 언더파, 최소타 신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7월 US 여자 오픈에서 LPGA투어 개인 첫승을 거둔 전인지는 두 번째 우승도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했다.

3위는 아리아 주타누간(태국)의 브리티시 오픈 우승이 차지했고, 4위에 또 다시 박인비의 이름이 올랐다. 박인비는 지난 8월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업을 이뤘다.

마지막으로 5위는 주타누간이 5월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 킹스밀 챔피언십, 볼빅 챔피언십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다. LPGA투어에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이 나온 것은 지난 2013년 6월 박인비 이후 약 3년 만이었다.

starburyny@news1.kr



박인비(28·KB금융그룹)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Double Parish of Catholic Church

<판공성사>
12/4일, 18일 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토) 8PM

<성탄절 미사와 행사>
12월 25일(일) 11:30AM 미사
10AM 영어 미사 없음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일) 1:30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토)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일) 11:30AM, 4:30PM
10AM 영어 미사가 없음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행 9:31)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일기도회 / 저녁 7시
송구영신 / 오후 8시 | 영도침례 / 평일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임 목사 / 우시환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4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신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Hwang 권도사
유년/13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JEONGIL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 | |
|---------|--------|
| 주일 예배 | 오전 10시 |
| 주일 학교 | 오전 10시 |
| 영도침례 공부 | 오전 11시 |
| 목요 공부 | 오전 7시 |
| 수요 예배 | 오전 7시 |
| 구역 예배 | 각 구역별 |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25, (978) 944-2404
www.jeongil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송구영신: 오후 2시 | 대학부요청: 주일 12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영도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국학교: 월 9:30-11:30

담임목사: 김현덕
817.73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0.4488
http://www.ku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전례 마땅한 삶을 영위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무릎 꿇고 사탄 사탄에게,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영위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무너져나가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구영신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도침례 주일오후 12:30
속죄기도회 수-주일 속죄회
영도침례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송구영신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경제에 세무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대표이사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고객을 더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아용품과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니덤에 위치한 세탁소에서 카운터로 일하실 분 구함.
T. 781-854-2193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영주권 소지자.
T. 617-869-1698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시톤 소재 세탁소
클리너, 카운터 (풀/파트 타임)
* 영어 가능자 우대
* 주급 협상 가능

연락처: 617-319-4134

재택 간호인 구함

한국어와 영어 가능한 재택 간호인 (HHA/CNA/nursing student) 으로 웨슬리에 거주하시는 박인순 할머니 돌봐주실 분 구함.

모집조건:

- 연장자 케어 경험있는 분.
- 본인 소유차로 의료 예약에 라이드 가능한 분.
- 한국음식 요리 가능한 분.

좋은 보수와 더불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

관심있으신 분은 로즈 앤(Rose Anne)에게 전화: 617-840-2123 로 연락 주십시오.
* 이력서 준비해 주십시오.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KUKKIWON USA TAEKWONDO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 | |
|--------------------|------------------------------|
|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 617-338-2352 800-632-8075 |
| 고등교육위원회 | 617-727-7785 |
| 고등교육정보센터 | 800-442-1171 |
| 공중위생국 | 617-624-6000 |
| 구세군 | 617-536-7469 |
| 국제청 | 800-829-1040 |
| 날씨문의 | 617-976-6200 |
| 로간국제공항 | 800-235-6426 |
| 미아찾기 | 888-477-6721 |
| 백메이역 | 617-345-7958 |
| 보스턴공립학교 | 617-635-9000 |
| 보스턴수도 | 617-989-7000 |
| 보스턴시청 | 617-635-4500 |
| 보스턴총영사관 | 617-641-2830 |
| 사우스역 | 617-345-7958 |
| 사회보장국 | 800-772-1213 |
| 성폭행 | 781-237-9110 |
| 성폭행 | 617-492-8300 |
| 시간문의 | 617-637-123 |
| 아동보호 | 617-418-2000 |
| 아동학대 | 800-792-5200 |
| 알고올/마약 | 617-445-1500 |
| 여성학대 | 617-248-0922 |
| 온전연하 | 617-351-4500 |
| 벨러 | 617-348-8500 |
| 자원봉사 | 800-522-8086 |
| 적십자 | 800-564-1234 |
| 전화신청 (Verizon) | 800-941-9900 |
| 전화교정선교 (Verizon) | 617-555-1515 |
| 택시 | 617-343-4475 |
| AAA | 800-222-4357 |
| FBI | 617-741-5533 |
| MBTA | 800-392-6100 |
| NSTAR가스 | 800-572-9300 |
| NSTAR 전기 | 800-592-2000 |
| RCN케이블TV/전화 | 800-746-4726 |

한인회

| | |
|------------|--------------|
| 뉴잉글랜드 한인회 | 781-933-8822 |
| 뉴햄프셔 한인회 | 603-767-1356 |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 401-368-0467 |
| 메인 한인회 | 207-756-0092 |
| 버몬트 한인회 | 802-734-2521 |

주요 단체

| | |
|-----------------|--------------|
|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 978-407-7554 |
|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C) | 603-889-8201 |
| 뉴잉글랜드골프협회 | 617-438-9763 |
|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 978-902-8305 |
| NE교역자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문인협회 | 978-688-3137 |
| 뉴잉글랜드신약회 | 774-270-1948 |
| 뉴잉글랜드시인협회 | 508-962-2689 |
|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 978-394-3060 |
|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 617-833-1360 |
| 대사추진위원회 | 603-894-5425 |
| 민주평통보통협의회 | 413-535-0916 |
| 보스턴 대한체육회 | 781-326-9009 |
| 보스턴산악회 | 978-569-3256 |
| 보스턴한미노인회 | 978-994-5490 |
| 재미과학기술자협회 | 857-998-7043 |
| 재미인민회 | 339-298-7187 |
| 세탁인민회 | 508-826-5270 |
| 이북5도도민연합회 | 978-514-3399 |
| 한인학교연합회 | 781-424-5269 |
| FH인간재단연합회 | 401-481-4900 |
| 한국인민회(메인) | 207-878-5652 |
| 625참전유공자회 | 978-725-9597 |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 | |
|-------------|--------------|
| 건국대학교동창회 | 401-738-8735 |
| 경기고등학교동창회 | 508-995-7242 |
| 경기여고동창회 | 781-861-0437 |
| 경복고동창회 | 617-921-8799 |
| 고려대학교 교우회 | 617-795-1779 |
| 뉴잉글랜드신약회 | 774-270-1948 |
|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 978-474-4780 |
| 보스턴 신약회 | 978-569-3256 |
| 보스턴한인사회관 | 617-789-4964 |
| 산사람 | 774-270-1948 |
| 서강대동문회 | 617-599-9869 |
| 서울고 동문회 | 617-792-2635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서울대학교동창회 | 978-821-9434 |
| 성균관대동창회 | 802-734-2521 |
|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 508-541-6969 |
| 이화여고동창회 | 617-277-0730 |
| 이화여대동창회 | 978-390-1552 |
| 중앙대학교동창회 | 603-622-8883 |
| 강원도민회 | 617-875-1801 |
| 충청향우회 | 678-717-8800 |
| 한양대동문회 | 781-708-3160 |

언론

| | |
|-----------------|--------------|
| 보스턴코리아 | 617-254-4654 |
| 한인일보 | 781-933-8822 |
| 한국일보(뉴욕) | 718-482-1111 |
| Grapevine Times | 781-548-9945 |

종교

| | |
|--------------|--------------|
| 기독교 | |
| 구세군 물동교회 | 617-792-8780 |
|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 617-913-3074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낮아짐교회 | 781-832-2014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갈보리교회 | 413-789-9888 |

| | |
|-------------|--------------|
| 구세군물동교회 | 617-792-8780 |
| 그리스연합감리교회 | 203-459-8517 |
| 그리니치한인교회 | 203-861-1134 |
|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 603-430-2929 |
| 나사렛사람의교회 | 781-439-1840 |
| 내슈아한마음교회 | 603-888-8040 |
| 뉴잉글랜드감리교회 | 617-969-0507 |
| 뉴잉글랜드한미교회 | 413-567-9142 |
| 뉴튼 아름다운 교회 | 617-869-8159 |
| 뉴햄프셔감리교회 | 617-990-7619 |
| 뉴햄프셔한인교회 | 603-437-5134 |
| 라이코스교회 | 603-264-6799 |
| 라이스한인침례교회 | 978-387-1115 |
|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 508-926-8236 |
|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 401-353-0983 |
| 대생명의길장로교회 | 401-944-2520 |
| 메리맥 교회 | 401-821-2311 |
| 목양교회 | 978-806-1363 |
| 무지개교회 | 617-223-1690 |
| 밀양한인교회 | 207-774-1617 |
| 렉싱턴 풍성한교회 | 978-244-0691 |
| 버클랜드 침례교회 | 617-953-0856 |
| 보스턴 국제교회 | 617-864-5948 |
| 보스턴 감리교회 | 617-459-6479 |
| 보스턴 사랑의교회 | 781-393-0004 |
|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 617-285-8870 |
|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 781-484-2404 |
| 보스턴 새로남교회 | 781-715-0571 |
| 보스턴 생명의교회 | 617-947-6765 |
| 보스턴서부장로교회 | 보스턴 새생명교회 |
| 보스턴 성결교회 | 978-777-1800 |
| 보스턴 한울교회 | 978-578-6987 |
| 보스턴 소망교회 | 781-894-3958 |
| 보스턴시온성교회 | 781-275-8233 |
| 보스턴 안식교회 | 781-396-1004 |
| 보스턴 온누리교회 | 617-686-5526 |
|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 978-758-4541 |
| 보스턴 장로교회 | 781-279-3270 |
| 보스턴 제일교회 | 781-933-7044 |
| 보스턴 주님의교회 | 781-393-0004 |
| 보스턴 중앙교회 | 508-435-4579 |
| 보스턴 침례교회 | 617-458-2733 |
| 보스턴 주님의교회 | 617-966-9608 |
| 보스턴 중앙교회 | 617-230-5004 |
| 보스턴침례교회 | 857-636-9985 |
| 보스턴 한인교회 | 617-739-2663 |
| 보스턴 한우리교회 | 978-454-0454 |
| 보스턴한인연합교회 | 617-923-9581 |
| 북부보스턴감리교회 | 978-470-0621 |
| 비전교회 | 617-308-2391 |
| 새빛교회 | 781-652-0001 |
| 새세루살렘교회 | 774-249-0022 |
| 선한목자장로교회 | 904-400-9386 |
| 성요한 교회 | 781-861-7799 |
| 순복음 보스턴교회 | 617-413-5372 |
|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 413-789-4522 |
| 스프링필드제일교회 | 413-781-2477 |
| 시온감리교회 | 401-739-8439 |
| 안디옥 교회 | 617-833-3394 |
| 열방교회 | 617-620-3352 |
| 에이더 벨렘교회 | 978-274-2369 |
| 엘리트 한인장로교회 | 413-549-6495 |
| 엘리트 시온교회 | 413-549-9200 |
| 올스타한인교회 | 617-642-7403 |
| 올스타 교회 | 508-799-4488 |
| 우스타장로교회 | 781-354-1843 |
| 워싱턴프린더 교회 | 918-876-2815 |
| 임마누엘 연합교회 | 978-594-3060 |
| 자연교회 | 603-437-6151 |
| 좋은땅교회 | 978-930-6613 |
| 지구촌방주교회 | 617-838-6434 |
| 케임브리지한인교회 | 617-491-1474 |
|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 781-861-3877 |
| 켄싱턴장로교회 | 617-770-2755 |
| 하버드 한인선교회 | 617-441-5211 |

간판

| | |
|-----|--------------|
| 문수사 | 781-224-0670 |
| 서운사 | 508-755-0212 |
| 심광사 | 617-787-1506 |

원불교

| | |
|----------|--------------|
| 원불교보스턴성당 | 617-666-1121 |
|----------|--------------|

천주교

| | |
|--------------|--------------|
|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 617-558-2711 |
|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 401-499-8258 |

건강식품

| | |
|---------------|--------------|
|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튜어 | 781-238-0303 |
|---------------|--------------|

건축

| | |
|------------------|--------------|
| 글로벌건축 | 617-645-6146 |
| 김원대 건축사 | 617-620-8242 |
| 미남건축 | 508-650-8844 |
| 선아건축 | 508-230-5878 |
| 솔로몬 DRYWALL | 978-761-0623 |
|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 617-999-9616 |
| 이놀드 건축 | 617-833-1360 |
| 파인원건축 | 617-688-6833 |
| 한샘(주) | 781-487-0101 |
| ECO Construction | 781-608-2971 |
| E/Y 건축 | 617-590-3472 |
| J.C건축 | 781-738-7871 |
| J&D 인테리어 | 617-645-6661 |
| LEE'S건축 | 617-538-0558 |

골프개인

| | |
|---------|--------------|
| 골프레슨 | 617-458-2733 |
| 골프스쿨 | 617-775-5527 |
| 남궁연골프교실 | 978-474-4780 |
| ABC골프 | 603-401-7990 |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 | |
|-------------------|--------------|
| 김영일 회계사 | 617-901-0707 |
| 김창근 세무사 | 781-935-4620 |
| 노성일공인회계사 | 781-863-2232 |
| 이현주 회계사 | 781-944-2442 |
| 이명원 회계사 | 617-455-8073 |
| Hana Rehab Clinic | 508-584-5860 |
| 정진수회계사 | 617-792-2355 |
| 한미회계사 | 617-283-7151 |

꽃

| | |
|-------|--------------|
| 미스틱화원 | 617-666-3116 |
| 대교플라워 | 617-875-0648 |
| 앤더슨꽃집 | 781-894-1843 |

금융/모기지

| | |
|------------|--------------|
| 인디펜던트(퓨얼유) | 617-777-2929 |
| 에이저리 | 781-591-2722 |
| 이중수파이낸스 | 617-799-6158 |

냉동/에어컨/히팅

| | |
|-------------|--------------|
| JK 플러밍 | 978-303-7000 |
| Nirvana Air | 508-473-3429 |

노래방

| | |
|-------|--------------|
| 진 노래방 | 617-782-9282 |
|-------|--------------|

도서관

| | |
|-----------|--------------|
| 뉴햄프셔한인도서관 | 603-644-1991 |
| 보스턴공립도서관 | 617-539-5400 |

당구장

| | |
|--------|--------------|
| 올스타당구장 | 617-782-0969 |
|--------|--------------|

동물병원

| | |
|-----------|--------------|
| 김문소 동물병원 | 978-851-3626 |
| 윤상래 동물병원 | 978-343-3049 |
| 제임스킴 동물병원 | 978-658-5282 |

떡/잔치/반찬(주문)

| | |
|-------|--------------|
| 형제떡집 | 978-975-3303 |
| 장음식주문 | 781-648-0584 |
| 한아름 | 617-547-8723 |

미용실

| | |
|---------------------|--------------|
| 가위소리 | 617-782-8111 |
| 그레이스스킨케어 | 978-468-0039 |
| 그레이스커팅클럽 | 617-331-1011 |
| 던온 헤어살롱 | 617-206-4560 |
| 뷰티풀 헤어살롱 | 857-284-3879 |
| 세리 미용실 | 781-676-7374 |
| 압구정동알굴방 | 617-437-0378 |
| 송현미미용실 | 508-734-0446 |
| 순옥뷰티미용실 | 508-737-8636 |
| 신현침미용실 | 617-947-6293 |
| 에이뷰미용실(채혜경) | 617-868-2253 |
| 오성희미용실 | 617-275-3109 |
| 이경혜미용실 | 800-867-9000 |
| 이정선 | 617-535-7851 |
| 이도경(condo & rental) | 781-771-0047 |
| 정혜은미용실(EXT.125) | 603-770-3491 |
| 정은숙미용실 | 617-236-8600 |
| 조현경미용실 | 508-249-5838 |
|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 203-255-2800 |
|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 603-845-2138 |

돌상 대여/폐백

| | |
|------|--------------|
| 해피돌상 | 617-249-3131 |
| 폐백 | 978-688-0929 |

방송국

| | |
|----------|--------------|
| 엔티비보통사업국 | 617-955-9112 |
|----------|--------------|

변호사

| | |
|-------------------|--------------|
|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 617-239-0839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9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김성근 변호사 | 781-438-6170 |
| 김성희 변호사 | 617-894-0002 |
| 김연진변호사 | 617-742-7707 |
| 박현종특허변호사 | 978-474-8880 |
| 성기주변호사 | 617-504-0609 |
|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 203-852-9800 |
|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 203-324-6155 |
| 장우석 변호사 | 781-712-1706 |
| 정선진변호사 | 617-230-0005 |
| 피터전변호사 | 203-386-0503 |
| JOHN DOWNEY 법률사무소 | 647-964-5809 |
| STEVEN S. KIM 변호사 | 617-879-9979 |
| Joy Lee 변호사 | 617-624-0292 |
| Young Lee Danesh | 617-367-4949 |

병원

| | |
|--------------|--------------------|
| 가정의 | |
| 그레이스 김 가정의 | 978-475-5656 |
| 내과 | |
| 송민근 | 617-696-7600 |
| 허버드뱅크(이재용) | 617-421-2282 |
| 401-722-0305 | |
| 산부인과 | |
| 최의웅산부인과 | 401-726-0600 |
| 이윤노산부인과 | 508-427-3000 |
| 장경이 소아과 | 978-687-2119 |
| 심리상담 | |
| 배주은심경정신과 | 617-566-1055 |
| 심리상담 | |
| 김자함심리치료사 | 781-769-8670 x6080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 | |
|-------------------|--------------|
| 가족물리치료병원 | 781-365-1876 |
| 닥터스통증병원 | 617-731-1004 |
| 성진우추추신경전문 | 978-688-6999 |
| 추 남남 D.C. | 617-230-4250 |
| Hana Rehab Clinic | 617-566-1199 |
| 보스턴컨테드케어 | 617-277-0648 |

치과

| | |
|------------|--------------|
| 김동원치과 | 978-689-9363 |
| 김정주 치과 | 860-623-2601 |
| 키치소아치과 | 978-655-1583 |
| 신영목 치과 | 617-265-5606 |
| 안 치과 | 781-647-8000 |
| 엑셀패밀리덴탈 | 617-471-6970 |
| 이영완치과 | 508-987-8228 |
| 이요셉치과 | 781-431-7295 |
| 케임브리지덴탈 | 617-492-8210 |
|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 617-871-1482 |
| 켄지소아치과 | 617-471-2184 |
| 손영환치과 | 978-459-0594 |
| 프록스팩트덴탈그룹 | 617-576-5300 |
| 한은애고정치과 | 781-894- |

"배드민턴 후 야간 어깨통증, 단순 관절염 아냐!"

- ... 회전근개파열, 오십견과 달리 팔 완전히 올리면 통증 없어
- ... 어깨충돌증후군 치료 안하고 방치하면 '석회화건염' 으로 발전

이번주 휴랍 의료정보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 휴랍 네트워크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어깨통증은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레저 스포츠와 스마트기기의 인기로 비교적 젊은층에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정성훈 강남 연세사랑병원 어깨상지관절센터 부원장은 "젊은층은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 어깨의 사용 빈도가 많은 스포츠를 즐기다 부상을 당하기 쉽고, 중·장년층은 어깨 근육 및 인대가 퇴행해 어깨통증이 발생한다" 며 "어깨 질환을 제 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만성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만 상당수 환자가 단순 근육통으로 치부해 파스나 찜질에 의존하는 실정" 이라고 설명했다.

어깨충돌증후군은 가을철 스포츠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깨질환 중 하나다. 이 질환은 어깨힘줄인 회전근개가 어깨를 지붕처럼 덮고 있는 뼈인 견봉 사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인은 어깨힘줄과 견봉이 인접해 있어도 충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힘줄과 견봉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충돌하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점액낭이 붓고 견봉이 아래로 돌출돼 통증을 유발한다.

다른 어깨질환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다. 충돌로 생긴 점액낭이나 회전근

개 손상 부위에 석회가 침착되면 석회화건염,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충돌하면 회전근개파열로 악화될 수 있다.

정 부원장은 "다른 사람이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통증이 심해지지만 누르던 어깨에 힘을 빼면 비교적 편안해지는 게 특징" 이며 "머리 위쪽에서 팔을 움직일 때 아프고, 팔을 들 때 어깨 안에서 무엇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낮보다는 밤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아픈 쪽 어깨로 누워 자기가 어렵다" 고 덧붙였다.

어깨충돌증후군이 심해져 발생하는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감싼 네 개의 어깨힘줄인 회전근개가 변성 및 손상되는 것으로 전체 어깨통증 원인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어깨 사용량이 많은 야구·농구·테니스 선수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인도 캐치볼 등을 무리하게 하거나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 있다.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느껴지다 완전히 올리면 괜찮아지는 게 특징으로 어깨에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한다. 특히 머리를 묶을 때처럼 팔을 뒤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기가 힘들고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도 설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 근육통이나 오십견과 증상이 비슷해 구별하기가 어렵다. 회전근개파열은 통증이 심한 대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오십견은 어깨관절을 둘러싼 조직에 염증이 생

기고 조직끼리 서로 달라붙어 팔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정 부원장은 "회전근개파열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파열된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지방으로 변성되고 힘줄 안쪽도 손상돼 봉합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깨통증이 만성화되고 팔과 어깨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해 행동에 제약이 생겨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최근 요로결석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였던 체외충격파(ESWT)가 어깨통증 치료에 도입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치료법은 몸 밖에서 1000~1500회의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집중적으

로 쏘 통증유발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충격이 가해진 부위는 혈류량이 늘어 조직이 재생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1주일 간격으로 3~5회, 10분씩 시술하며 반복시술도 가능하다.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만성 어깨통증 환자나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증상이 심할 땐 최소침습의료기기인 내시경을 이용해 치료한다. 관절내시경시술은 5mm 미만의 작은 절개창을 낸 뒤 초소형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을 관찰하고 동시에 치료한다. 흉터가 남지 않고 일상생활 복귀도 빨라 젊은 직장인, 여성, 수술에 부담감을 느끼는 고령 환자에게 만족도가 높다.

정 부원장은 "직접 어깨관절 안으

로 내시경을 넣어 관찰하기 때문에 관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회전근개파열 정도나 구조물의 부딪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며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한쪽 팔만 마취(상완신경총마취)하고 수술시간이 길지 않은 게 장점" 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장관내시경 검사처럼 잠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수면마취를 함께 실시하면 수술 중 불편감이 덜하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려면 근력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시하는 게 좋다. 운동 전 15분 정도 '어깨 들었다 내리기' 와 '깎지 끼고 기지개 펴기' 등 운동을 실시하면 긴장한 어깨관절과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한 운동은 어깨힘줄 파열의 주원인으로 적당한 강도로 운동해야 부상을 막을 수 있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행동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평가 (\$20/영. \$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 PPO, 후쿠이, 학교/유학생/이동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더 킹' 대한민국 뒤집는 조인성X정우성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더 킹'이 메인 예고편을 드디어 공개했다.

20일 공개된 '더 킹' 메인 예고편은 대한민국 권력의 추를 움직이는 핵심인물들의 화려한 모습과 함께 그들의 이면에 숨겨진 유쾌한 풍자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극적인 순간과 함께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카피는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할 이야기를 담은 영화 '더 킹' 만의 남다른 규모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어 절정으로 치닫는 핵심 인물들의 화려한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들을 쫓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라는 미지의 인물의 목소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라는 권력 설계자 한강식(정우성 분)의 임팩트 있는 대사는 '더 킹'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조리한 권력 세계의 단면을 암시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극한다.

특히 마지막 "모든 걸 걸었다"는 의미심장한 대사는 세상의 왕이 되고 싶은 한 남자 박태수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마디로, 예고편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 1차 예고편에서 공개한 굿관 엔딩신으로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더 킹'은 이번 메인 예고편에서도 강렬한 파티션 중 일부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더 킹'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 분)가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 분)을 만나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다. 내년 구정 개봉한다.

aluem_chang@news1.kr



'사임당' 이영애 · 송승헌, 끌어올린 기대감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사임당'이 30초 티저 영상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극본 박은영/연출 윤상호, 이하 사임당) 측은 지난 19일 이영애와 송승헌의 모습이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영애는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우아한 자태의 사임당과 시간강사 서지윤 1인 2역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송승헌은 사임당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이점으로 형형한 눈빛을 보여줬다.

영상 속 이영애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한 고택에서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울 앞에 서있다. 송승헌의 "사임당"이라는 절구에 현대의 서지윤(이영애 분)은 금세 과거의 사임당(이영애 분)이 된다. 현대 복식을 한 이영애와 한복을 입은 송승헌이 서로를 스쳐가는 장면은 두 사람이 펼쳐낼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ppbn@news1.kr



'공조' 현빈X유해진 묘하게 어울리고 뱅뱅 터지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공조'가 남북 최초의 비공식 합동수사라는 참신한 소재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현빈과 유해진의 기대 이상 호흡도 관심을 끄는 포인트다.

'공조'는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 최초의 공조수사가 시작되고,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특수부대 북한형사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형사의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그린 영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개최된 '공조'의 제작보고회는 북한형사로 강렬한 변신을 선보인 현빈, 대세배우 유해진, 서늘한 악역으로 돌아온 김주혁, 첫 스크린에 데뷔하는 임윤아 그리고 김성훈 감독이 참석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과 북의 공조수사 현장을 담은 예고편을 시작으로 '공조'의 짜릿한 액션과 시원한 웃음이 담긴 스페셜 영상을 최초 공개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특수 정예부대 출신 북한형사 립철령 역을 맡아 기존의 도시적이고 부드러운 매력과는 180도 다른 매력을 보여줄 현빈은 "'공조'를 위해 긴 기

간 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스스로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크다"며 소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남한형사 강진태 역으로 코믹 연기의 진수를 보여줄 유해진은 "처음에는 티격태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앙상블을 이루는 남북한 형사의 모습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리고 싶었다"고 전해 현빈과 유해진, 두 배우의 색다른 브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탈북 범죄조직의 리더 차기성 역을 맡아 서늘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는 김주혁은 "새로운 악역 캐릭터 변신에 약간의 부담도 있었지만 꼭 해보고 싶었던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캐릭터를 위해 몸도 열심히 만들었고 무엇보다 색다른 만족감을 느낄 만큼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스크린에 데뷔하는 임윤아는 "실제 민영 캐릭터와 제가 닮은 부분이 많아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더욱 자연스럽게 유쾌한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전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조'는 내년 1월 개봉한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2월 12일 ~ 2016년 12월 18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 | | | |
|----|------|------------------|-------|
| 1 | KBS2 |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 29.0% |
| 2 | SBS | 월화드라마(낭만닥터김사부) | 22.7% |
| 3 | KBS1 |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 21.2% |
| 4 | SBS | 드라마스페셜(푸른바다의전설) | 17.0% |
| 5 | KBS2 |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 16.0% |
| 6 | SBS | 그것이알고싶다 | 14.9% |
| 7 | KBS1 | KBS9시뉴스 | 14.5% |
| 8 | SBS |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 14.1% |
| 9 | SBS |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 13.8% |
| 10 | SBS |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 13.6% |

Tbo Play 주간시청률

| | | | |
|----|------|------------------|--|
| 1 | KBS2 |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 |
| 2 | MBC |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 |
| 3 | KBS1 |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 |
| 4 | KBS2 |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 |
| 5 | S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 6 | SBS |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 |
| 7 | MBC |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 |
| 8 | SBS |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 |
| 9 | MBC |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 |
| 10 | MBC |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 |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 | |
|----|----------------------|-----------|
| 01 | 에라 모르겠다 | BIGBANG |
| 02 | LAST DANCE | BIGBANG |
| 03 | 저 별 | 헤이즈 |
| 04 | GIRLFRIEND | BIGBANG |
| 05 | 이 바보야 | 정승환 |
| 06 | Decalcomanie (데칼코마니) | 마마무 |
| 07 | TT | TWICE |
| 08 | BERMUDA TRIANGLE | 지코 (ZICO) |
| 09 | 나비잠 (Sweet Dream) | 김희철X민경훈 |
| 10 | 우주를 줄게 | 볼빨간사춘기 |

숫자 퍼즐 (Sudoku)

| | | | | | | | |
|---|---|---|---|---|---|---|---|
| 9 | | | | 1 | | | 4 |
| 1 | | | 8 | | | 9 | 5 |
| | 4 | | 9 | 7 | | | |
| | 9 | 5 | | 2 | | | |
| 2 | | | | | | | 5 |
| | | | | 5 | | 7 | 9 |
| | | | | 3 | 7 | | 8 |
| | 7 | 4 | | | 8 | | 6 |
| 3 | | | 4 | | | | 7 |

12월 25일 - 12월 3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 | |
|---|--|---|
| <p>쥐띠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p> <p>● 운수: 대부분의 사람은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먼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 금전: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 <p>소띠 급한 순서를 정해서</p> <p>● 운수: 현재 상황만 가지고 미리 속단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을 조금이지만 써야 할 일이 많으니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 <p>범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p> <p>● 운수: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없고 그렇다고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이 나가거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
| <p>토끼띠 정보에 의존해서</p> <p>●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p> | <p>용띠 금전용동이 수월하게</p> <p>● 운수: 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 금전: 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용동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애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29일 길일. 30, 31일 주의.</p> | <p>뱀띠 다시 한 번 실감</p> <p>● 운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 금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 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p> |
| <p>말띠 편하게 생각해야</p> <p>● 운수: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니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 금전: 큰 소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스스로도 제어하기가 힘들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6, 30일 주의.</p> | <p>양띠 미리 확인을 하고</p> <p>● 운수: 예약이나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이대로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니 평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애정: 좋았을 때는 그런대로 견뎌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1일 길일. 27, 30일 주의.</p> | <p>원숭이띠 유리한 상황으로</p> <p>● 운수: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욕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 금전: 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 애정: 우선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0일 길일. 25, 31일 주의.</p> |
| <p>닭띠 기대와는 다르게</p> <p>● 운수: 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돈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체 거래하지 마세요. ● 애정: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 <p>개띠 타인의 시선을</p> <p>● 운수: 계속해서 쓰자니 여러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직면 문제로 고심하게 됩니다. ● 금전: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5, 27일 주의.</p> | <p>돼지띠 가랑비에 옷 젖듯이</p> <p>● 운수: 혹시라도 만나주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 금전: 편한 것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있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 애정: 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1일 길일. 25, 28일 주의.</p> |

빅뱅, 美 '빌보드 200' 역사상 두 번째 진입

(서울=연합뉴스) 김나희 기자 = 그룹 빅뱅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Billboard) 200'에 진입, 또 하나의 값진 수확을 거두었다.

빌보드는 지난 19일 '빅뱅이 '어 라이브(Alive)' 앨범 이후로 4년여 만에 '메이드 더 풀 앨범(MADE THE FULL ALBUM)'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며 빅뱅의 성적을 집중 조명했다.

빅뱅은 172위로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 전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시에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어 빌보드는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에라 모르겠다'는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스트 댄스(LAST DANCE)'는 마치 팬들에게 전하는 편지와 같은 곡이다"라고 호평했다.

빅뱅이 이름을 올린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판매량, 트랙 및 스트리밍 앨범 등의 수치를 기반한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곡들을 매주 선정하는 주요 차트다.

아울러 빅뱅은 국내 주요 음원사



이트 실시간 차트 정상에 등극, 계속된 신곡 공세에도 불구하고 8일째 막강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8시 기준, '에라 모르겠다'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비롯해 몽키3, 네이버뮤직 등 3개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빅뱅은 8년 만에 정규 앨범 '메이드 더 풀 앨범'을 발매한 직후

국내 실시간, 일간 차트에 이어 주간 차트 '올킬'을 달성했다. 또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총 20개국 1위, 애플 뮤직 '베스트 오브 더 위크(Best of the Week)',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 '금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새로운 노래'에 선정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nahee126@news1.kr



'칭찬합시다' 부활... '무한도전' 산타 유재석, 이웃에 선물 전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산타와 루돌프로 변신한 '무한도전' 멤버들이 착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한다.

'산타 아카데미'를 통해 명예 산타로 뽑힌 유재석과 루돌프가 된 나머지 멤버들은 최근 진행된 MBC '무한도전' 녹화에서 우리 주변의 착한 이웃들을 칭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유재석 산타는 루돌프 옷에 불만을 표했던 멤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후 즉각적인 개선을 시행해 멤버들의 호응을 얻었다.

'무한도전' 멤버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선물을 베푼 착한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 90년대 화제

를 모았던 MBC '칭찬합시다'의 '칭찬 트럭'을 부활시켰다. 이 트럭에 '산타 아카데미'에서 획득한 선물을 싣고 출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멤버들은 '무한도전'의 방문을 전혀 모르고 있는 '칭찬합시다' 주인공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놀라운 상황을 마련했다. '무한도전'의 정체가 공개되자 깜짝 놀란 이들은 '칭찬 트럭' 앞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는데, 과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멤버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무엇일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무한도전'은 오는 24일 오후 6시25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해투3' 허지웅 "야동 본 것 엄마에게 들켜" 좌절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허지웅이 학창시절 야동을 보다가 어머니에게 들킨 사실을 언급했다.

22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는 예능 어벤져스 특집이 꾸며졌다.

이날 허지웅은 "어머니가 방송을 하고 나서 표정도 밝아지고 다 좋다. 그런데 어느날 기사를 봤는데 내가 야동을 보는 거를 어머니가 봤다더라"며 좌절했다.

허지웅은 이어 "고등학교 때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 엄마가 들어오

자마자 내가 일어나서 '엄마 야과'라고 연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허지웅 모친은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아들의 야동 관리를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uu84@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대를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OAAB • G.O.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1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2 | MBC | 불어라 미풍아 |
| 3 | KBS | 빛나라 은수 |
| 4 | KBS | 다시 첫사랑 |
| 5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6 | SBS | 사랑이 오네요 |
| 7 | MBC | 언제나 봄날 |
| 8 | SBS | 사랑은 방울방울 |
| 9 | MBC | 행복을 주는 사람 |
| 10 | MBC | 황금주머니 |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1 | 가려진 시간 | 강동원, 신은수 |
| 2 | 커튼콜 | 장현성, 박철민 |

티보플레이 12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1 | 가려진 시간 | 강동원, 신은수 |
| 2 | 커튼콜 | 장현성, 박철민 |

'가려진 시간', 시간 소재 영화 흥행 이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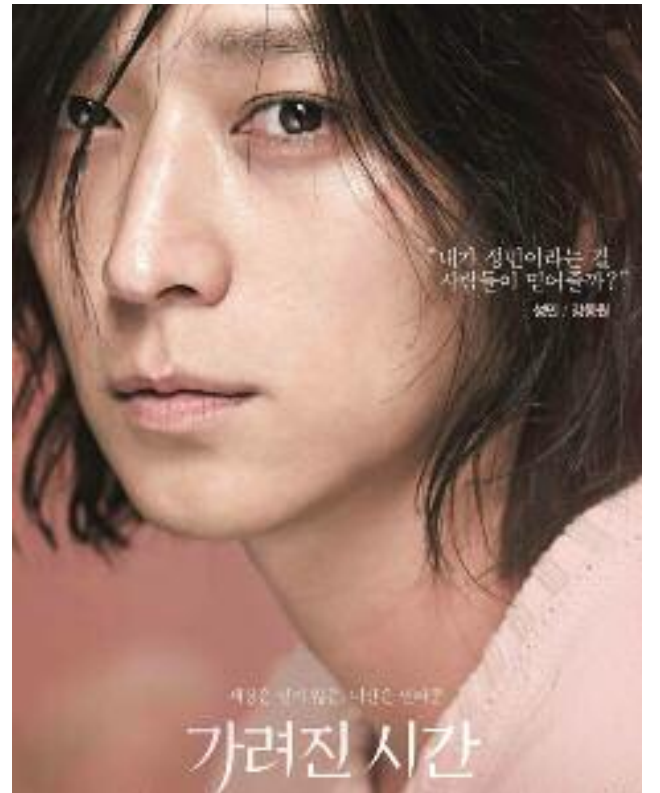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가려진 시간'이 '인터스텔라'와 '닥터 스트레인지'를 잇는 새로운 '시간' 소재 영화로 기대를 모은다. 시간은 아직까지 인간이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영역 중 하나다. 시간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이론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한국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판타지 장르에 '멈춰진 시간'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결합시킨 감성 판타지 '가려진 시간'.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 본 시공간이 멈춘 세계를 섬세한 연출로 구현해낸 '가려진 시간'은 시간을 소재로 한 기존 영화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내 특별함을 더한다.

또한 멈춰진 세계에 갇혀 어른이 되어 돌아온 13세 소년과 그를 믿어주는 유일한 소녀의 순수한 믿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에 엄태화 감독은 "전형적인 이야기보다는 새로운 이야기, 그 중에서도 시간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다. 현실과 비현실이 부딪히는 소재 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며 '가려진 시간'을 연출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렇듯 '멈춰진 시간'을 소재로 한 '가려진 시간'은 따스한 감성을 전하며 '인터스텔라', '닥터 스트레인지'를 잇는 '시간' 소재 영화로 흥행 열풍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aluem_chang@news1.kr



'유희낙락', 김희철 기획 의도 듣고 바로 MC 결정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김희철이 배성재, 장예원과 함께 '유희낙락' MC를 맡는다.

SBS 게임 전문 예능 '게임쇼-유희낙락' 측은 6일 김희철과 SBS 아나운서 배성재, 장예원이 MC 군단을 이룬다고 밝혔다.

평소 게임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희철은 "게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청자도 즐길 수 있는 게임쇼를 만들겠다"는 '유희낙락'의 기획 의도를 듣고 출연을 확정지었다.

그는 인기 아이돌 멤버들로 구성된 스타 게임단을 만들어 시청자들과 게임 대결을 하고 게임 PD로 변신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등 활약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김희철과 절친한 개그맨 이진호와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아이 오아이의 소혜, SF9 다원이 고정 패널로 합류한다.

제작진은 "김희철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코너 아이디어까지 제안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색다른 게임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ppbn@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car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촛불을 함께 들어주세요.



그후로
1000일

세월호 참사 1000일 보스턴 추모제

일시: 2017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2-5시
장소: 주님의 교회 285 Lake St. Waltham MA
특별 강연: 장호준 목사
가족 이벤트: 시낭송, 음악, 카드 컬러링
문의: bostonsewol@gmail.com
(보스턴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
보스턴세사모 페이스북 링크:
<https://facebook.com/groups/1271694532869003>
*우측의 QR 코드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57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더 라스트 북스토어(The last bookstore)에 다녀와서...

엣그제는 캘리포니아 주 LA에서 문학 행사가 있어 며칠 다녀왔다. 행사 전날 6시간의 비행시간을 거쳐 LAX에 도착해 정해 놓은 호텔로 향했다. 코리아타운의 호텔에 묵으니 미국이 아닌 한국이란 느낌이 들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글로 된 한국 간판이 가득하고 오가는 인파들 속에서조차 외국인보다 한국인들이 더 많았다. 보스톤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LA 도시의 풍경이기도 하다. 여하튼 도착한 날 오후는 그렇게 한국 타운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돌아와 편안하게 지냈다. 복잡한 도시 안에서의 홀로 있음이 때론 큰 목상의 시간일 때가 있다.

문학 행사는 다음 날 저녁 6시에 시작하기에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다. 마침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되어 가까운 곳에 들를만한 곳이 있느냐 여쭙니 그리피스 공원(Griffith Park) 내의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를 추천해 주신다. 몇 년 전 캘리포니아를 방문하며 둘러보았던 곳이라 다른 곳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헌팅턴 라이브러리(Huntington Library)를 알려 주

신다. 그래서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서 4시간 정도를 둘러봐도 볼 것이 너무 많아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리고 행사를 잘 마치고 보스톤으로 돌아오는 비행 스케줄은 그다음 날 자정이 되는 밤 시간으로 정했다. 그렇게 출발하면 보스톤에는 이른 아침에 도착하니 여러 가지로 편안했다. 사실 그곳에 사시는 지인 몇 분이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하자고 하시는데 연말연시로 모두가 바쁜 시간임을 알기에 감사 인사를 하고 나중으로 미뤘다. 그래서 혼자 하루를 어디를 다녀오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는 지인이 시내의 더 라스트 북스토어(The last bookstore)를 추천해주는 것이다. 오래된 책방이라는 말에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었다.

더 라스트 북스토어 오프라인 서점은 2005년 LA 시내의 작은 다락방에서 처음 열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편리와 형편에 따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만 켜면 구매가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며 서점 역

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며 책방의 의자에 걸터앉거나 바닥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추억을 떠올리는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그자리가 바로 2011년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란다.

"서점의 아름다움은 '책을 어떤 배경과 액자로 보여주느냐'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의 작가 시미즈 레이나의 글 중에서 발췌한 글이다. 나는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찾다가 좋은 글귀라 여겨 내용을 옮겨본다. 그렇다, 잊혀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지난 것들은 모두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듯 우리 부모님 세대와 오십을 넘긴 세대는 그런 아련한 책방(서점)의 그리움이 있는 것이다. 쌓인 책무덤 사이마다 무엇인지 어스레한 불빛에 쫓겨간 마음이 맴도는 그런 느낌 말이다.

서점에 들어설 때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설렘은 언제나처럼 그런 긴장감의 짜릿한 느낌으로 마주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래층

서점을 둘러보며 눈 속에 가득 들어오는 그 행복감을 추스르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책장을 넘기며 책장의 골목마다에서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시간에 그 속에 폭 빠져든 모습들이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책과 사람의 거리 그리고 활자와 눈과의 거리 그 사이의 가슴 뛰는 심장 소리는 진정 아름다웠다.

이렇게 더 라스트 북스토어(The last bookstore)에서 위아래층을 3시간 정도 돌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나도 Rainer Maria Rilke의 시집 한 권을 손에 들고 왔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감동이란 이처럼 무엇인가 크고 높고 멀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작은 것들에서의 감동이 나 자신을 꿈틀거리게 하고 그 순간의 감동이 행복이 되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음을 또 깨닫는 날이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소소한 일상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날을 주심에 감사하는 감동의 날이길 기도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뫼비우스의 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어느 해인들 격동의 세월이 아닌 적이 있었나. 어느 달이건 질풍노도와 같지 않은 달이 있었는가. 어느 세모歲暮건, 착잡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12월말 감상에 젖기에 알맞은 때다.

그러나 그러나 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쯤 텅 빈 가슴을 또 드러내어도 내년에는 더 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쩍니까? (오광수, 12월의 독백 중에서)

까치의 설날인 그믐날엔 가래떡을 만들었다. 불린 쌀을 이고 어머니는 방앗간으로 갔다. 심심하던 어린 내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칠리 없다. 어머니를 졸래졸래 따라갈 적에, 백열구

등밑엔 검은 방아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덜컹이는 기계소리는 더운 수증기와 뒤엉키고 섞였다. 기계 앞엔 다라이가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렸다. 가래떡이 쉬임없고 끊임없이 뽑혀 나왔다. 흰색 가래떡은 김을 뿜어내고 있었고, 떡냄새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묻혔다. 우리 떡은 언제 뽑나 기다릴 적이다. 새삼 쳐다본 가래떡 기계에는 피땀줄이 걸려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낡고 거무튀튀했는데, 벨트를 따라 기계와 기계는 연결되어 작동되는 듯 했다. 어른 바지의 단마냥 넓은 벨트는 인부의 팔뚝 힘줄처럼 강인해 보였고, 벨트는 특이하게 꼬여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가보다 했다. 내가 궁금증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피땀줄이 꼬인 이유를 한참 뒤에 알았다. 한

번 꼬아서 연결하면, 벨트의 앞과 뒷면이 골고루 닳는다는 거다. 뫼비우스 띠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방아간에선 뫼비우스의 원리를 알지 못해도 어렵지 않게 방아기계는 돌아갔다. 뫼비우스 띠는 리사이클 표식으로 쉽게 보여진다. (그림 참조: 뫼비우스 띠가 무슨 원리인지 몰라도 된다. 그저 그렇게 있나 하시라. 궁금하면 구글링 해보시라.)

뫼비우스의 띠에도 앞뒤가 없듯, 세월에도 앞뒤가 없는 듯 하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작년과 다름없이 세모가 다시 닳았다. 해마다 연말과 연시는 분명 다른 시간일 텐데, 지구는 태양을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바퀴 돌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지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데, 세월도 리사이클 할 수 있을까? 오늘이여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세. 지구도 한살을 더 먹고 나면 어김없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설테니 말일세. 나이만 한살 더 먹을 거라 서글퍼 마시고, 병신丙申년이어 안녕. 떡방아간 기계는 오늘도 돌아가는가?

메리크리스마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 6:24)
피땀줄 (皮帶-); 벨트 (네이버 사전). 예전엔 벨트를 그렇게 불렀다.
뫼비우스의 띠: 경계가 하나밖에 없는 2차원 도형으로, 띠의 안과 밖의 구별이 없다.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1. 신앙과 축제 (4)

망령 춤(Ghost Dance) 계속

그래도 계속되자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군대를 불러들이고 이 운동의 주동자로 간주된 시팅불을 체포하는 과정에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시팅불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망령춤과 관련되어 며칠 뒤에는 운디스니에서 끔찍한 학살사건도 일어났다. 이후 망령춤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카도 인디언 나라(Caddo Nation)에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대의 인디언 인구를 가진 나바호에서는 망령춤 종교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나바호는 이미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족민들이 구원을 부르짖는 신흥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망령 춤 그림(파인릿지 인디언보호구역, 1890년)〉

포우와우(Pow Wow)

포우와우는 Pow Waw라는 나라간세트

(Narragansett) 원주민의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인디언들의 전통춤 경연대회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포우와우는 대학의 연구기관과 기타 인디언 유관기관에서 개최하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여 걸쳐 참가한 부족 간에 친교하며 노래와 춤과 북의 솜씨를 겨루어 시상한다. 주로 가을에 개최되는 캘리포니아지역의 같은 성격의 행사는 big time이라고 불린다.



〈오마하 포우와우(Omaha Pow Wow) 입장식(1983년)〉

평화의 담뱃대(Peace Pipe)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물건 중에는 미대륙에서 건너온 것들이 많이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이른바 세 자매라고 불리는 옥수수, 콩, 호박 외에도 감자, 딸기, 블루베리, 칠면조 등도 미대륙이 원산지이다. 특히 감자는 유럽의 식량부족을 해결하여 17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만든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감자가 병해충으로 인하여 흉작이 되는 시기에 는 유럽이 모두 굶주리게 되고 기근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미국행 이민선을 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은 담배 또한 미대륙이 원산지이다. 구대륙의 사람들이 담배를 남용하여 니코틴 중독으로 폐암 발생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에 반하여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담배를 신성시하여 종교의식이나 중요행사에만 사용하였다. 흔히 ‘평화의 담뱃대(peace pipe, sacred pipe 또는 calumet이라고도 함)’에 담배를 채운 후 불을 붙이게 되면 담배연기가 기도하는 사람과 만물의 창조주인 정령을 연결시켜 준다고 믿는다.

피스 파이프의 모양과 용도는 부족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담뱃대를 만드는 재질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담뱃대는 담배를 채우는 작은 용기(bowl)와 연기가 통과하는 빨대(straw)로 구성된다. 북부 평원 인디언들은 사우스다코타의 Big Stone Lake의 서쪽에 있는 Coteau des Prairies 지역의 채석장에서 캐낸 catlinite이라는 진한 적색을 띤 돌을 이용하여 보울을 만들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도 이 지역에서 담뱃대용 돌을 마음 놓고 채취해 갈 수 있었다고 한다.

피스 파이프는 부족 간의 화친 조약 체결 시에는 물론이고 상업적 거래 성사 시에도 쓰이고 전쟁으로 나가기 전 부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피스 파

이프는 상대방에 대한 특별한 호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여 귀한 손님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도 인디언들의 중요한 행사에서는 피스 파이프 의식이 빠지지 않는다.



〈피스 파이프(peace pipe, calumet)〉



〈블랙푸트(Blackfoot) 인디언과 함께 피스 파이프를 입에 문 Harry Behn(Glacier National Park, 1916)〉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9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스多唵(1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의 호화관 주택인 ‘금입택’ 들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김유신의 종가 ‘재매정택’의 터와 일부는 복원되어 전한다), 계속하여 그 주택의 명칭들로서 위치를 유추해 본다(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 제1장 참고, 김태식, 김영사). 이 금입택들 중에는 강가에 있었거나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있었다. 양상택楊上宅, 유아택柳也宅 그리고 누상택樓上宅 들은 버드나무가 많은 강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양楊과 유柳는 버드나무를 뜻하기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누상택은 집안에 누각이 있었기에 붙은 이름으로 강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많은 금입택들 중에는 사찰이나 관아에 붙었거나 가까이 위치한 경우도 볼 수 있다. 특정 사찰의 이름으로 지어진 주택으로 남유택南維宅, 빈지택賓宅, 한기택漢岐宅, 비혈택鼻穴宅, 판적택板積宅, 김양종택金楊宗宅, 사상택寺上宅, 임상택林上宅 등이 있다. 아울러 아남택衙南宅은 관아의 남쪽에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호화주택들의 명칭으로 위치를 유추해 보았다. 다음은 금입택의 이름으로 조

경적인 면을 살펴본다. 양상택과 유아택은 집안에 버드나무를 심었거나 주위에 많은 버드나무가 둘러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버드나무들은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누상택은 집에 큰 누각을 세우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택池宅과 지상택池上宅은 집안에 큰 연못이 있었을 것이며, 상양택上櫻宅과 하양택下櫻宅은 집안에 많은 앵두 나무를 심었거나 앵두나무군락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임상택林上宅의 경우는 청룡사 동쪽에 있었다고 삼국유사에 전한다. 그런데 청룡사의 위치를 알 수 없다. 현존하는 경북 예천의 청룡사는 후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문무왕 16년, 676년, 아주 작은 절이지만 귀중한 보물 두 점을 소장하고 있다. 424호인 석조여래좌상과 425호인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신라의 호화주택이었던 39세의 금입택들이 삼국유사에 이름만 전해오고 있지만 그 명칭들로 조경학적인 면도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화랑세기에 나오는 세 채의 호화주택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에 언급된 39세의 신라인들의 호화주택들 가운데 유일하게 수망택水望宅이란 집 한 채가 화랑세기에

나온다. 수망택의 소유자는 염장廉長(586~648)이었다. 염장은 지도태후知道太后와 천주天主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도태후는 진지왕의 정비였다. 진지왕은 폐위되고 나서 3년 후 죽었다. 그리고 지도는 진흥왕의 아들인 천주와 사통하여 염장을 낳았다. 천주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후궁 월화궁주이다. 월화는 아버지가 가야의 이뇌왕이고 어머니는 신라의 양화궁주이다. 염장은 자신보다 9세나 어린 15세 풍월주 김유신(595~673) 아래서 부제副弟로 있었다. 그리고 통례적으로 부제가 차기 풍월주가 되는데, 다음 16세 풍월주는 보종공에게로 넘어 갔다. 그리고 보종의 후임으로 17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다(621~627). 그가 풍월주로 있을 때는 김춘추가 부제로 있었다.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은 그가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보다는 재물을 끌어 모으는데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가 모은 재산이 거의 모두 보종공이 16세 풍월주로 역임할 때였다. 염장은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사취욕私取慾이 많았다. 그는 보종공이 16세 풍월주로 역임할 당시 보종의 집안일을 관리하면서 재물을 모았다. 당시 신라의 관행으로 용납되었는지 몰라도 염장은 막대한 재산을 사취하였다. 염장이 모은 재산

의 규모를 화랑세기에는 “당시 사람들이 공의 집을 가르켜 수망택水望宅이라 했는데 금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홍수와 같다고 해서 이른 말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다. 수망택은 단순히 물을 바라 볼 수 있는 지역에 건축된 주택이 아니라 아마도 화랑세기의 기록대로 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홍수와 같기에 실제적인 물과 상관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금입택에 관하여 다른 기록은 없지만 금이 홍수와 같이 들어가려면 주택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신라의 호화주택들을 금으로 치장했기에 ‘금입택’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염장의 수망택처럼 금이 많이 들어갔기에 ‘금입택’이라고 명명하지 않았겠는가! 당시 호화주택의 소유자들이 과연 염장廉長의 이름처럼 모두가 청렴했을까? 아니면 염장의 마음처럼 재물을 탐욕했을까?(염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7세 풍월주 편에서 다룰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가슴, 눈, 코, 안면윤곽, 지방성형, 피부클리닉 전문

S프로포즈 성형외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을 위한 프로포즈! 프로의 프로포즈는 나뿐입니다"



◀ 대표원장 김지욱

성형외과 전문의 및 보철 의사
미국 뉴욕주 의료진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15년 이상
미국 Manhattan Eye, Ear & Throat
Hospital에 근무. 지방, 흉부성형 전문
보수형, 리프트, 안면윤곽



◀ 원장 정현석

성형외과 전문의
리프트, 안면윤곽, 성형외과 전문의
전 10년 이상의 성형외과 의료 경험
항상 최상의 결과를 위한 것임

PROPOSE
눈성형 클리닉
안면윤곽, 눈성형, 안검열, 안검하수, 안검상, 안검하수, 안검상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선명한 눈매

매몰 : 110만원 → **88만원**
질개 : 150만원 → **132만원**

PROPOSE
고상형 클리닉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오뚝한 콧날

콧대교정 : 363만원 → **308만원**

PROPOSE
가슴성형 클리닉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당당한 가슴

특대 : 680만원 → **605만원**
중상형보형물 : 770만원 → **660만원**
후수 : 880만원 → **770만원**



눈, 코, 동안, 지방, 가슴, 안면윤곽, 안티에이징 전문

케이뷰라인 성형외과

"케이뷰라인 성형외과는 최과적유아를 위한 위해 시술명령을 지닌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1:1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원장 구본상

성형외과 전문의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안면윤곽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15년 이상
미국 Manhattan Eye, Ear & Throat
Hospital에 근무. 지방, 흉부성형 전문
보수형, 리프트, 안면윤곽

고국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눈썹거상
187만원 → **154만원**

상안검
107만원 → **154만원**

하안검+지방제거
198만원 → **154만원**

실리프팅
385만원 → **264만원**

안면거상
660만원 → **550만원**

안면거상+목거상
880만원 → **66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에 성형, 비유리 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한 경우 개인소득 양식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키키오독 : 010.3469.4040 / ID: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XIII -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2016년의 총 주제인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를 결정하려 고민했던 시간이 바로 잊그제 같은데, 올 한해가 일주일 남짓 남겨져있다. 시작이 아무리 나빠도 마무리가 좋으면 악연도 호연으로 변하고, 시작이 아무리 근사해도 마무리가 나쁘면 호연도 악연으로 변하고 만다. 이 남은 일주일의 시간, 2016년을 호연의 년도로 만들고 싶지 않은가?

의도적이건, 운명적이건, 끝이 항상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을 갖고, 자신의 필요성이 없을 때 관계를 끝내기 때문이다. 관계의 끝 자락에서 자신이 이용당했구나 하는 배반감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준 그 사람과의 악연을 피할 수가 없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악연을 자꾸 쌓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갈까? 악연을 일삼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갈 것이다.

마음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오고,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것이다. (법정 2011)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것이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눌 마음이 없으면, 나누어 줄 것이 없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빠, 진정한 마음 나눌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가장들이 있다. 하지만, 법정스님의 말처럼 오히려 풍요 속에서 욕심이 더 생기고, 맑은 가난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요즘 한국 정세가 돌아가는 것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최순실은 권력과 재물이 주는 재미에 빠져, 자신만의 탐욕이라는 마음의 방에 갇혀 살다 결국 자살골을 던지고 말았다. 박근혜대통령은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은 욕심

에 빠져, 동안시술을 시도 때도 없이 했다. 60이 넘는 아줌마의 피부가 어찌면 저렇게 고울까? 하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더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7시간이나 수술대에 누워, 313명의 어린 청소년이 죽어가는 줄도 몰랐다. 이 오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위반으로 탄핵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사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과 감정이 변한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테라피 치료법이 있다. 인지행동 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이다. 줄임말로 CBT이다. 이 치료법은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마음치료를 한다. 일주일 남짓 남은 2016년의 한 주가 자신의 생애 남은 마지막 주라고 생각해보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47세의 카네기 멜론의 랜디 포시 교수는 자신이 체장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생애 얼마 안 남았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다. 그는 400명의 청중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 하면서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그의 맑은 눈빛과 성의 있는 강의는 매 순간 청중들이 그의 진실한 메시지에 감동받게 했다. 자신의 세 자녀에게 자신의 생애 대한 생각과 조언을 남기고 싶었고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의도와 다르게 그의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 자녀에게 물질적인 도움마저 가져다 주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책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자녀들이 꾸게 될 꿈에 희망을 품으며...'

그의 생애의 마지막의 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과 '희망'으로 시작된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가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생명을 주려했다. 사람들에게 생애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방법,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방법, 모든 순간을 값지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 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세 자녀는 아버지처럼 사람들과의 마지막 관계의 끝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항상 호연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진 사람들은 다시 못 만날지언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애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준다. 그들은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살면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생애에 그런 사람이 한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생애에 대한 행복을 빌게되고, 생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되고, 자신의 생애에 희망과 꿈을 자라게 한다. .

미세스 리의 온 가족은 어머니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의논을 하면서 미세스 리는 어머니의 기억력과 인지도가 떨어지기 전, 어머니의 확실한 의도의 유언장을 써 줄것을 제안했다.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욕심때문이 아닌, 돈 앞에서 형제의 관계가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었다. 그녀의 제안은 그녀의 의도와 아주 다르게 흘러갔다. 그녀는 돈 만 아는 변절자라고 낙인을 찍혔다. 그녀의 오빠는 "나를 모르냐?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나라도 어린 것이 왜 나서냐!"며 호통을 쳤다. 미세스 리 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고, "너가 어찌다 이렇게 속물이 되었니? 너 그렇게 돈 궁하니?" 하면서 추궁마저 했다. 자신의 진실한 우려가 돈만 아는 변절자로 내몰리자,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마저 들었고 오빠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녀의 오빠는 돈 욕심을 드러냈다. 법에 의해, 형제 수 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기로 하자, 그녀의 오빠는 아들인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결국, 미세스 리가 우려한 것처럼

돈 때문에 형제의 의의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함께 그토록 믿었던 오빠마저 그녀가 우려한 것처럼 행동을 하자, 생애의 힘이 되었던 큰 두 기둥을 동시에 잃고 말았다. 이 상실감은 생애의 의미에 대한 회의, 배반감의 아픔에 빠지게 했고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이 들면서 테라피 요청을 해왔다.

테라피를 통해, 자신도 돈에 욕심이 있기에 어머니께 유언장을 써 줄것을 요청했음을 시인했다. 자신이 돈 욕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 빨리 우려를 할 수 있었고, 오빠가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했다. 자신도 오빠와 똑같이 돈 욕심이 있음을 시인하자, 그녀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너무도 다르게 냉랭해진 오빠 내외에게 섭섭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오빠 내외도 자신의 돈 욕심을 보고 자신만큼 섭섭하겠구나 하는 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세스 리는 돈 때문에 형제애가 금이 가면 안된다는 그녀의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생각이 변하니 행동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다.

2016년 첫 칼럼에 쓴 말이 있다. 이해인 수녀가 쓴 '12월의 편지' 수필집의 글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이다. 2016년 마지막 칼럼을 끝내며, 다시 2016년 새해에 했던 첫 질문을 해본다. 만약,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생애를 마무리를 질 것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들은 일의 좋은 마무리보다는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감사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2016년의 마지막 한 주, 카네기 멜론의 랜디포시교수의 '마지막 강의'처럼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필자는 장담한다. 이렇게 하면, 2016년은 호연의 년도로 기억되어질 것이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트럭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60)

“고객을 위한 법안” 반대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하며 한푼 한푼 벌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해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아봅니다.

사무실도 번듯하고 책상과 벽에는 온갖 성과와 증명서가 가득합니다. 직함도 높고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재정설계사입니다. 나의 노후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 준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정설계사가 몸담은 재정회사와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투자자의 이익입니다.

2016년 초에 미국 노동국(DOL, Department of Labor)에서 ‘신용의 의무’란 법을 제정했습니다. ‘신용의 의무’란 재정설

계사가 고객의 돈을 투자할 때 고객의 이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은 당연한데,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금융회사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이 법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all Street Groups Sue to Block ‘Unworkable’ Fiduciary Rule, Bloomberg, June 2, 2016) 소송을 제기한 몇 곳을 영어로 직접 표현합니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Insured Retirement Institut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Fixed Annuities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Indexed Annuity Leadership Council〉,

〈Life Insurance Co. of the Southwest American Equity Investment Life Insurance Co.〉, 〈North American Co. for Life and Health Insurance〉

반대하는 기관 대부분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입니다. 특히 어뉴어티(Annuity)를 파는 보험회사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용의 의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어이가 없습니다. 법원에 제소한 실제 ‘반대 이유’입니다.

*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소송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설계사를 감독하는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 많은 숫자의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이익에 막대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투자자 개인에게 무슨 이유로 불리하게 작

용하므로 이 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싼 금융상품(어뉴어티, Nontraded REIT, 등)을 투자자에게 팔 수 없으므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담배회사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돈을 벌 수 없기에 담배를 청소년에게 계속 팔게 해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인, 주식브로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현재 Fiduciary(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에 비싼 투자종목을 투자자에게 팔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모릅니다. 모든 재정설계사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법적으로 ‘신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Health Insurance 5

Over-insured or Under-insured?

의료보험을 들어야 할까? 내 의료보험 커버가 충분할까? 가장 많은 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이런 질문들일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도 물론이고 오바마 케어, 매스 헬스도 이런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염두에 두고 실행했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교적 작은 문제일 수 있는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금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상 많은 분이 부담감을 느끼는 참으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메디케어를 받지 않는 중년 클라이언트를 예를 들자면 높은 커버리지는 매달 1,500불 이상의 월납금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비싼 금액을 내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이 정기검진만 받는다고 하면 연 20,000불에 가까운 금액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지급한 후 오로지 남는 것은 마음의 평안뿐입니다. 물론 보험이란 것 자체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가정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 닥쳤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과거에 한 번의 선택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있는 설명 이상일 것입니다.

지난 이슈에서 설명해드린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꼭 의료보험의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주요검사나 수술, 또는 지속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높은 월납금 이상으로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가입자가 지급하는 프리미엄만큼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대안으로 설계해 드리는 방법이 기본적인 커버리지를 유지하되 의료보험료는 최대한 낮추며 흔히 말하는 3대 질환과 같은 사고, 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위한 보조적인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장점은 원금회복 등의 옵션이 있기에 매년 갱신을 하고 혜택을 받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통상적인 의료보험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Over-insured or Under-insured를 말씀드리자면 의료보험은 월납금에 비해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필요 이상의 Over-insured에 속하게 됩니다. 그 외 큰 질병이나 만약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 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 숫자를 비교하자면 터무니없이 낮은 Under-insured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 암,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보조 보험은 지금은 건강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옵션이 의료보험과 비교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들은 특히 가족 병력이 있다면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는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옵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적인 대안, 또는 내 건강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증에서 월납금, 투자금 대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입니다.

현재 미국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5%의 소비자들이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해 44%도 안 되는 비율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중년 이상일 것이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생명보험의 가입률은 아주 미미하고 20대, 30대는 거의 가입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위 친구들이 가입하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오로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옵션으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의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회사에서 고용되어있는 기간에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니까, 주위 사람들이 딱히 언급도 하지 않고 젊고 건강하다면 필요성도 느끼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생명보험 가입자의 큰 부분은 결혼을 하고 갖 아기를 출산한 가족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며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부부들도 의료보험이나 모기지 관계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보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의료보험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기 전, 가입이 가장 유리한 상황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입니다. 모든 건강과 관련이 있는 보험은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걱정되기 전 신체가 건강할 때, 거슬러 올라간다면 더 젊고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할수록 동일한 혜택을 확연히 더 낮은 월납액에, 또는 더 높은 혜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시작하는 의료보험의 가입 기간은 지금부터 2017년 1월 31일입니다. 1월 1일부터의 시작은 12월 15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 했기에 지금 신청을 한다면 2017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거나 플랜 갱신 시 위의 내용을 참고로 커버리지를 꼼꼼히 살핀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커버리지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H+
양지병원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세병원 완공과 함께 선조종합병원으로 새우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내과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남: 65만원 / 여: 75만원

|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의학적 검사(신체계측, 체중, 체온, 혈압) | 1. 흉부 X-ray | 1. 갑상선 초음파 |
|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 2. 전립선 초음파 | 2. 유방초음파(유방) |
|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 3. 포만도 검사 | 3. 유방 조영술 |
| 4.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24시간 Holter 모니터링) | 4. 대장내시경 | 4. 고압력 검사 |
| 5. 위장기능 검사(총부 X-ray, 위도, 노폐물 배출량) | 5. 내장내시경 | |
| 6. 요검사 10종 | | |
| 7. PSA 검사 | | |
| 8.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 | |
| 9. 수면기 검사(안수면 검사) | | |
| 10. 피부 초음파 검사(안면, 목, 손) | | |
| 11. 분변 및 생검액 검사 | | |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의학적 검사(신체계측, 체중, 체온, 혈압) | 1. 흉부 X-ray | 1. 흉부 X-ray |
|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 2. 전립선 초음파 | 2. 전립선 초음파 |
|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 3. 포만도 검사 | 3. 포만도 검사 |
| 4. 심전도 검사(휴식, 운동, 24시간 Holter 모니터링) | 4. 대장내시경 | 4. 대장내시경 |
| 5. 위장기능 검사(총부 X-ray, 위도, 노폐물 배출량) | 5. 내장내시경 | 5. 내장내시경 |
| 6. 요검사 10종 | | |
| 7. PSA 검사 | | |
| 8.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 | |
| 9. 수면기 검사(안수면 검사) | | |
| 10. 피부 초음파 검사(안면, 목, 손) | | |
| 11. 분변 및 생검액 검사 | | |

당일 종합검진 남: 50만원 / 여: 60만원

|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 남성 포함 | 여성 포함 |
|--|------------|------------|
| 1. 의학적 검사(신체계측, 체중, 체온, 혈압) | 1. 갑상선 초음파 | 1. 갑상선 초음파 |
| 2. 흉부 검사(흉부방사선) | 2. 전립선 초음파 | 2. 전립선 초음파 |
| 3. 혈액 검사(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 3. 포만도 검사 | 3. 포만도 검사 |

VVIP 입원 종합검진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TET CT) / 보충검사 / 진단검사 / 수술 / 의료서비스(안심환실, 의료진입실)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내과)
- 당일 종합검진: 2pm~12:20pm 1pm(14:20) 17:15(18:00) 19:00
- VIP 종합검진: 2pm~12:20pm 1pm(14:20) 17:15(18:00) 19:00 / 고압력
- VVIP 종합검진: 2pm~12:20pm 1pm(14:20) 17:15(18:00) 19:00 / 고압력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 진료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1:1 에스노드 / 1:1 전차 체크 시스템
◎ 선진진료(중환자실) 소모임 및 프로그램
◎ 검사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원내급 내시경 당일 통진사 시행
◎ 전문 의료진 주치의 교수와 시술 및 훈장

기본검진 프로그램 총금 479만원 / 12월 31일(토)까지

| 남성 | 여성 |
|-------------------------|-------------------------|
| [50세미만] — 55만원 — 49만5천원 | [50세미만] — 59만원 — 53만1천원 |
| [50세미만] — 67만원 — 60만3천원 | [50세미만] — 69만원 — 62만1천원 |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총금 479만원 / 12월 31일(토)까지

| 남성 | 여성 |
|---------------|---------------|
| 480만원 — 432만원 | 500만원 — 450만원 |

정밀검진 프로그램 총금 3447만원 / 12월 31일(토)까지

| 남성 | 여성 |
|---|---|
| 1. 소파기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00만원 — 90만원 | 1. 소파기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10만원 — 99만원 |
| 2. 심장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00만원 — 90만원 | 2. 심장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10만원 — 99만원 |
| 3. 뇌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50만원 — 135만원 | 3. 뇌검진: 50세 미만 / 안질환 + 심장(14일) 154만원 — 138만원 |
| 4. 방광검진: 200만원 — 180만원 | 4. 방광검진: 220만원 — 198만원 |
| 5. 복부검진: 300만원 — 270만원 | 5. 복부검진: 320만원 — 288만원 |



개인의료사업팀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키오독: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크레딧 교정 이해 1 - 미국의 사법제도

안녕하세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송을 해 오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언제인가 물으십니다. 완벽한 시기란 우리가 이길수 있는 승소율이 가장 높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한국 기자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애플상대로 미국에서 소송,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 등이 머리가사를 장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즉, 법원에서 기각을 하겠는가 아니겠는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완벽한 시기” 가 됩니다.

이는 법적 혹은 당위적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가를 소장에서 밝혀,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삼성이나 애플은 이런 소송 자체가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고,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되므로 영업전략의 일환으로도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론 법원에서 소장을 기각하더라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 때문에 삼성에서 애플에 소송을 했는지 관심 갖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 접수한 다음,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협력해서 최선의 증거를 준비하면 완벽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게 됩니다. 완벽한 시기는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길 수 있다고, 다른 하나는 이기기에는 배심원

들을 설득하기에 좀 약하다 이거나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쪼다라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전자의 경우 제가 쓴 표현은 “이길 수 있다” 입니다. “이긴다” 가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최종 결정은 제3자 - 판사이거나 배심원 - 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음을 판단하고 나면 원하는 배상/보상을 전제로 합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정리되며, 소수의 사건이 여기서 해결을 못하고, 배심원 재판으로 가서, 전문학적인 숫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면에는 한푼도 못받고 끝나는 사건도 많구요.

제가 민사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국에서 사회제도가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 교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민사적인 처리과정을 조금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미국은 법제도가 적대적 제도(adversarial system)입니다. 즉,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주장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제도지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익숙치 않은 면으로 1. 서로 상대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기만이나 법률적 전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끔 정당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형사합의(Plea Bargain)입니다.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사실과 관계없이 유죄에 합의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구요...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세간에 드러나게 되면 안될 때 말입니다. 3. 판결은 증거를 둘러싼 변론에 의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변론을 듣는 배심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재력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5. 적대적 제도는 매우 더딤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를 부정하면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제도여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제도 적용과 사실관계 판단하는 것 외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 속에서, 개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은 매우 두드러진 측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진 미국에 살면서, 지난 몇주 동안 우리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용점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 신용기관은 자신의 기록을 제공 공유하여 자신의 사업분야에 사용하고 있고, 이 기록에 부당함이나 왜곡됨을 발견한 개인은 이 기록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해야 비로소 수정 및 정정의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FICO스코어로 표현되는 신용기록이며,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FICO를 받아 들여야 하고, 언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지, 이의제기를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이런 적대적 제도속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크레딧 교정이라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적대적 제도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1. 양 당사자간에 법리 남용의 기회가 적습니다. 소송 시작 후 법원 명령에 의거한 증거수집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합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형사과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심원에 의해 혐의를 입증될 때까지 무죄추정이 되어, 무고등으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게 된 경우 등 불필요한/정당화되지 않은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야 한다는 측면을 거꾸로 보면, 자기가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서로 균형을 갖춘 증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경찰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공권력을 이용하여 용의자를 체포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영장실질심사에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용의자를 정당한 사유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5. 배심원 선정과정을 통해,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배심원들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편견” 이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적 제도는 양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비로소 판사가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진술을 듣고 나서 언급하는 만큼, 덜 편향되게되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대중의 반감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소송/노동고용법]

연말연시 빈번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제 벌써 2016년 연말입니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임 대부분이 음주를 동반하기에 다른 시기보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성희롱입니다. 흔히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자유분방한 언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성희롱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연말 술자리에서의 성희롱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성적인 제안, 성적인 눈빛 혹은 결눈질, 외설적이거나 성적인 농담, 성적 발언, 모욕, 장난, 성적으로 불쾌한 몸짓, 성생활에 대한 거스르는 질문, 원치 않는 성적 혹은 신체적 접촉 등이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성희롱은 남

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혹은 동성 사이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성희롱이 행하여졌는지, 그에 따라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성희롱이 강압적 성행위, 성적 접촉 및 감금 등이 동반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자유로운 술자리의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성희롱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의 성적 언행에 동조하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당했을 시 성희롱을 유발한 사람에게 본인의 불쾌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중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제 어떠한 언행으로 성희롱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말 술 모임의 대부분이 회사의 회식자리이기 때문에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이와 같은 성희롱을 당해도 보복성 인사가 두려워 함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뉴욕 법과 연방법 모두 직장 내 성희롱과 그에 관련한 보복성 인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먼저 본인의 회사의 절차에 따라 그와 같은 성희롱을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로 인해 좌천, 해고, 연봉삭감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뉴욕주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뉴욕인권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종류에 따라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 (United Stat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180일 이내에 (만약 주법이 같은

이유는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면 300일 이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위와 같은 성희롱 및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 민법, 형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연시,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대처방법을 파악하여 술자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모임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곤혹스러운 일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수석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디젤, 지적 법권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예체능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및 섬머,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2 | AP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단기 교육점 완성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의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과목을
개인 과외 및 스카이프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 기간: 12월 19일(월) - 12월 30(금)
- 시간: 9:00am - 8:00pm

- SAT I New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과 실전문제 중심 위주 프로그램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방식 집중 공략
-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IC, Chemistry, Biology, Physics
- AP전과목 및 선행 학습과 개인 수업 과외**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